

기업과 문화예술의 아름다운 동행

Gyeongnam MICEFESTIVAL

2013 SUMMER
vol. 015





2013
07.04(목) - 07(일)

창원컨벤션센터 (CECO)
제2전시장

참관문의

055) 212-1015, 1012
창원컨벤션센터 전시팀

미술 애호가 여러분!
경남 최대 미술작품거래 시장을 아시나요?

- 경상남도와 창원시 공동주최로 참여하는 유일한 미술작품거래 전문박람회
- 세계적인 경남출신작가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곳
- 전국에서 특색 있는 갤러리와 작가들이 찾아오는 곳

박람회 구성

특별관 세계에 이름을 남긴 경남작가 특별전 (협찬 : 가나아트)
해외관 중국, 일본, 유럽지역 작가
국내관 경남, 부산, 광주, 대구, 인천, 서울 등 전국 갤러리 및 작가
이벤트관 프린트베이커리 작품관

박람회 구성의 자세한 내용은 www.giaf.kr 참조

온라인사전등록자 도록무료지급 이벤트 '2013 경남국제아트페어' 홈페이지(www.giaf.kr)에 접속하여 전시회관람 사전등록신청을 하면 행사기간 중에 행사장에 서 도록을 무료로 드립니다.(단, 온라인 사전등록신청은 2013년 6월 24일까지이며, 도록은 선착순으로 지급 예정이며, 소진 시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 최 : 경상남도 GYEONGNAM | 창원시 | 주 관 : (사)한국미술협회 경남도지회, (사)경남메세나협의회, 경남신문, 창원컨벤션센터(CECO) | 협 찬 : 좋은데이사회공헌재단

기업과 문화예술의 아름다운 동행 CULTURE FOR ALL

메세나(Mecenat)는 기업들이 문화예술 지원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고 국가 경쟁력에 이바지하는 활동을 말하며
고대 로마제국 시대에 문화예술인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하여 로마문화 번영에
큰 역할을 했던 재상 마에케나스(Maecenas)의
이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기다림

제민숙

행어나 찾아올까
대문 밖 서성이다

애써 태연한 척
먼 하늘 바라보며

아무렴
오늘만 날인가
곯았던 손 다시 편다.

제민숙

경남 고성 출생. 1999년 『자유문학』 신인상 등단. 한국문협. 경남문협. 고성문협. 한국시조시인협회 회원. 現고성예총 사무국장



기업과 문화예술의 아름다운 동행

GYEONGNAM MECENAT

2013 Summer / Vol. 015

contents

08

SPECIAL : 2013 경남메세나 정기총회
더 멋진 메세나, 비전을 제시하다

10

SPECIAL : 2013 경남메세나 정기총회
지휘자 금난새의 이야기가 흐르는 봄의 앙상블

12

LETTER : 경남메세나 임원간담회
가곡전수관 사랑방 음악회

14

LETTER : 예술단체 워크숍
경남 예술의 장맛빛 미래를 위하여

16

LETTER : 특별기고
경남메세나 5년의 성과와 과제

18

LETTER : 특별기고
경남메세나 활동의 의의와 전망

20

LETTER : 기업과 예술의 아름다운 동행
(주)고구려 브런치콘서트

22

LETTER : 기업과 예술의 아름다운 동행
일림나노텍(주) 외국바이어 초청 풍물공연

23

LETTER : 기업과 예술의 아름다운 동행
(주)세노텍 창립기념 공연

26

HUMAN : 동행
홍준표 경남도지사 인터뷰

28

HUMAN : CEO 인터뷰
디케이락(주) 노은식 대표이사

30

HUMAN : CEO 인터뷰
(주)범한산업 정영식 대표이사

32

CULTURE : 찾아가는 메세나
진주복지원에서 함께한 행복나눔 음악회

34

CULTURE : 2013 경남메세나포럼
유배의 땅 남해를 가다

38

CULTURE : 예술과 삶
유탉렬 화백

42

CULTURE : 우리지역 예술탐방
통영 동피랑 갤러리

44

CULTURE : 영화제작기
내 이름은 투이

46

CULTURE : 문화칼럼
경남 연극을 말한다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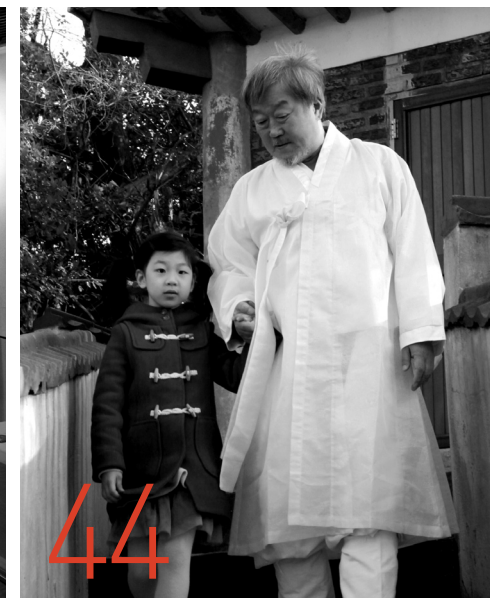
CULTURE : 우리지역 문화산책
내서문화포럼 & 고성오광대 '판'

50

경남 메세나 회원사 소개

51

경남메세나협의회 사업소개



2013년 2월 25일 저녁

창원 성산아트홀에서 경남메세나 2013 정기총회와 올해 첫

문화나눔, 홍보대사 금난새와 함께하는 ‘이야기가 흐르는 봄

의 앙상블’ 공연이 있었다.



GYEONGNAM MECENAT

2013 경남메세나협의회 정기총회

더 멋진 메세나, 비전을 제시하다

정기총회에서 박영빈 경남은행장이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경남메세나협의회 회장으로 재선임됐다. 박영빈 회장은 “창립 6년을 맞아 노력과 혁신, 질적인 성찰과 고민이 요구되는 전환기에 회장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올해 경남메세나협의회는 경남 문화예술이 더욱 풍성해지길 바라는 회원들의 염원을 담아 더 멋진 메세나의 비전을 세워 달성해 나가겠다”고 재선임 소감을 밝혔다.

회원사 대표, 예술단체장, 유관기관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정기총회는 개회를 시작으로, 회장 인사말·축사·2012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승인·2013년도 사업계획 발표와 임원선임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주)센트랄 강태룡 회장이 부회장으로 재선임되었고, 신임 부회장으로는 우수AMS(주) 전종인 회장, 신임 이사로 the큰병원 박창석 행정원장·(주)고구려 임채현 대표이사·법무법인금강 김원태 대표변호사가 각각 선임됐다.

현재 6년째 활동 중인 경남메세나는 2012년말 기준으로 회원사는 창립 시 79개에서 195개 회원사로, 결연 문화예술단체는 10개 팀에서 81개 팀으로 늘어나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금 또한 2012년도 22억 원을 기록해 전국 광역단체 최초로 20억 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렇게 경남메세나가 전국의 메세나 벤치마킹 대상이 될 만큼 우뚝 설 수 있게 된 데는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후원에 앞장서온 회원사들이 있기 때문’이라며 박 회장은 메세나 회원사에 감사를 표했다.



경남메세나 홍보대사
지휘자 금난새의

—
이야기가 흐르는
봄의 앙상블

Euro-Asian
Ensemble

—
Nanse Gum

—
봄 이_지나는
길목에

행복한
공연을_만나다

글 진강숙 사진 구분수

Ensemble

클래식 대중화를 이끌며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음악가로 손꼽히는 금난새 홍보대사는 이날 '유라시아 앙상블'과 함께 무대에 섰다.

'유라시아 앙상블'은 금난새가 이끄는 '유라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내 수석·부수석 연주자들만으로 구성된 실력 있는 단체다. 이번 공연은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편안한 곡들로 구성되어 관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하였다. 먼저 이탈리아 오페라 작곡가 치마로사의 '오보에 협주곡 C장조'를 그윽한 소리가 매력적인 오보에와의 협연으로 들려주었고, 이어 민속적인 정서로 넘치는 실내악의 걸작 드 보르작의 '현악 4중주 F장조 아메리카'를 경쾌한 연주로 들려주었다. 그동안 해설이 있는 음악회를 개척하며 대중이 클래식을 '쉽고도 즐거운 음악'으로 즐길 수 있도록 전도사 역할을 해온 금난새 지휘자는 이번 공연에서도 풍부한 해설을 곁들여 관객들의 이해를 도왔다.

"저희가 경남메세나에 연락하여 오게 되었어요. 오늘 이렇게 연계가 됐으니 앞으로도 문화로 소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문화약자나 소외계층에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경남장애인문화센터 관계자, "아주 재밌었어요. 메세나 행사는 처음이지만 원래 금난새 선생님을 좋아하는데 선생님 뵙는 것만으로도 아주 행복해요."라는 중년의 여성, "합창단에서 왔어요. 선생님께서 편하게 해설해 주시니 좋아요"라는 진해 한 초등생 합창단원까

지 모두가 대만족한 표정이다. 경남메세나가 올 한 해 목표로 내 건 '도민 속으로'를 실천하기 위해 준비한 '도민 소통 프로젝트'의 시작이 성공적이다.

"지역 문화예술을 특화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시행하고, 문화 사각지대를 찾아가는 문화나눔 사업도 확대해 도민 모두가 문화예술을 누리는 문화 경남시대를 앞당기겠다."는 박영빈 회장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든든한 백그라운드를 자처한 금난새 홍보대사. 그는 공연 중 이런 말을 했다. "교인이 아니더라도 숙연한 음악을 들을 땐 경건해진다. 어떤 날은 축제의 날이지만 어떤 날은 기원의 날이기도 하다."고,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메세나를 준비하는 이들은 문화예술을 꽃피우기위해 기원의 날을 보내지만, 그 결과로 경남도민들은 축제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기업과 예술의 아름다운 동행'이란 슬로건으로 지난 2007년 10월 첫발을 내딛은 경남메세나. 북 한 개로 시작해 전국적인 단체로 성장한 숯대패 사물놀이 예술단과 2011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마산의 가곡전수관 등이 메세나의 큰 결과물로 손꼽힌다.

이렇게 지역문화예술인들을 후원하고 나아가 나눔 공연으로 도민들의 문화예술욕구를 충족시키는 경남메세나. 2013년 100개 팀 결연 성사와 2015년 '세계 메세나 대회' 경남 유치에 꼭 성공하기를 바란다.



올해 첫 임원간담회

5월 9일 가곡전수관에서 열린 올해 첫 임원간담회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임원이 참석했다. 박영빈 회장은 “협의회 창립 시 10개 팀 결연에서 올해 그 열 배인 100개 팀 결연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하며 간담회의 문을 열었다. 100그루의 예술나무가 문화의 숲을 이루어 그 속에서 행복을 이루는 우리 도민들의 모습을 그리며, 임원들에게 함께 메세나 숲을 가꾸어 가자고 당부했다. 이어 메세나 협의회 사업보고 및 새로 선임된 임원들을 소개하고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가곡전수관... 사랑愛 물들다

회의가 끝나고 사랑방 음악회가 열렸다. 가곡전수관 조순자 관장이 직접 이날 연주되는 음악과 악기에 대해 해설해주며 관객들의 이해를 도왔다. 가곡의 노랫말은 없애고 선율로만 만든 음악으로 생황과 단소가 함께하는 〈수룡음〉, 격렬한 가락에 음을 끌어 올리거나 흘러내리는 연주법이 특징인 김동진류 〈대금산조〉, 한국의 아름다운 황톳길에서 악상을 얻었다는 25현 가야금으로 연주하는 〈황톳길〉, 그리고 12가사 중 하나로 봄의 향기 물씬 풍기는 〈매화가〉와 멋스러운 가득한 여창가곡 〈유자는〉을 듣는 동안 모두들 우리 전통음악의 아름다운 곡조에 흠뻑 빠져들었다.

이날 참석한 관계자는 공연 후 “술 대신, 가벼운 음식과 공연이 있는 오늘 같은 행사가 우리 지역에 뿌리내려야 한다. 경남메세나협의회가 선두가 되어 주길 바란다.”며 이날의 문화간담회를 지지하여 주최 측의 노고를 기분 좋게 씻어 주었다. 문득 “자기 문화를 좋아하고 자부심을 가지는 나라가 문화강국”이라던 박영빈 회장의 말이 떠오른다. 마산사람임을 자랑스럽게 하는 가곡전수관에, 경남의 지역민임을 자랑스럽게 하는 경남메세나협의회가 함께 했다. 격조 높은 공간에서 지역사회와 국가의 리더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좋은 일들을 생각해내는 일, 이것이 진정한 품격이 아닐까.

해진 거리로 차를 몰아 나오는 길, 화려한 차량의 전조등 불빛 속에서 25현 가야금으로 연주하던 황톳길의 한 자락이 떠오른다. 개발의 뒤편길로 사라져 가는 흙에 대한 향수라 했던가... 달구지 지난 뿌연 황톳길에 소나기가 내리고, 입속을 다 보이게 웃으며 비 피할 곳을 찾던 어느 개구쟁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것만 같다.

고려 정가를 넘어 신라 향가에서 기원을 찾는 가곡을 지금까지 끌고 왔듯, 경남메세나의 정신 또한 이처럼 오래도록 이어져 울창한 문화의 숲을 이루길 바란다.





ARTS ORGANIZATION WORKSHOP



2013 경남메세나
예술단체 워크숍

경남 예술의 장밋빛 미래를 위하여



論語에 子路問君子.
논어 자로 문 군자

子曰：修己以敬. 日：如斯而已乎? 子曰：修己以安人.
자왈 수기이경 알 여사이이호 자왈 수기이안인

자로가 군자에 대해 물으니 공자가 “자신을 갈고 닦아서 맡은 바를 신중하고 차분하게 수행한다.”고 답했다. 너무 간단한 대답이 믿기지 않아 자로가 다시 물었다. “이게 전부입니까?” 하니 공자가 “자신을 갈고 닦아서 주위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어야지!” 라고 대답했다는 이야기다. 자기를 갈고 닦아 백성을 편안하게 해주라는 것이다.

5월 16일 오후, 창원 상공회의소에서 경남메세나협의회가 주관하는 예술단체 워크숍이 열렸다. 활동 6년째, 짧다면 짧은 시간동안 경남 메세나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 경남메세나의 목표인 기업과 예술단체 100개 팀 결연으로 100그루의 예술나무를 키우자는 꿈은 이미 장밋빛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 문화예술발전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경남지역의 예술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박덕운 경남메세나협의회 전무는 “금년 목표인 100개 팀 달성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 예술단체장님들은 더욱 노력해 작품의 창작성과 예술성을 높여

가기를 바란다.”며 워크숍의 문을 열었다. “메세나 결연 예술단체의 작품성이 높아질수록 경남의 문화예술이 발전하고, 도민들의 문화수준도 높아진다.”며 도민들에게 최고의 작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예술단체장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작품성을 높이는 데 열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현재 10, 11월에 편중된 공연 시기를 조정하여 우리 경남에 1년 365일 문화예술공연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상호조율을 거쳐줄 것을 논의하고 예술단체장들의 기업경영마인드를 높여 메세나 사업예산과 연계한 호트러짐 없는 집행을 부탁했다. 이날 예술단체 워크숍에 참석한 문화예술인들은 스스로 경남의 문화 예술을 발전시키는 최첨병이라는 마음으로, 경남의 문화예술을 최고로 만들어 나가 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

올해는 경남 메세나가 생긴 이래 최고 많은 단체가 결연을 맺는다. 그 동안 기업과 유관단체에 메세나를 알리고 결연을 맺어나가는 데 주력했던 경남 메세나는 이제, 경남의 격을 한단계 더 높이려 한다. 몇 개 단체에 얼마를 지원했느냐보다 그 문화예술단체가 얼마나 창의적, 예술적으로 성장하느냐에 관심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修己安人是 군자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문화예술단체에 더욱 필요한 덕목이다. 갈고 닦은 재주로 한층 더 품격 있는 공연을 보여주길, 경남도민들은 기대한다.

경남메세나 5년 성과와 과제

GYEONGNAM MECENAT 5 YEARS

글 이문재 기자 (경남신문)



경남메세나협의회 중심의 조직적인 지역 메세나 운동이 5년을 넘어섰다. 경남메세나협의회(회장 박영빈 경남은행장)는 ‘기업과 예술의 아름다운 동행’을 기치로 지난 2008년부터 사업을 전개해 그동안 지역문화예술 발전은 물론 도민들의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주력했다. 특히 딱딱하고 획일적인 기업체에 문화·예술을 접목, 부드럽고 다양성이 가능한 새로운 기업문화를 창출하는데도 큰 몫을 했다. 경남메세나협의회는 짧은 기간 동안 문화·예술단체와 기업 간 결연팀 수를 늘린 양적 성장 외에도 기업에게는 문화예술 지원을 통한 사회적 공헌 롤모델을 제시했고, 문화·예술단체에는 왕성한 창작·활동 에너지를 불어넣는 성과를 거뒀다. 그동안의 성과와 현황을 살펴보고 지역 메세나 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 등을 짚어봤다.

사업비·결연팀 계속 늘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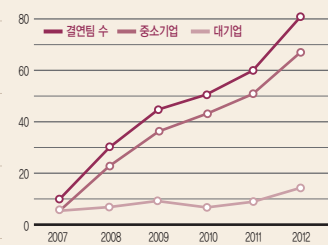
메세나 운동은 기업이 결연한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고, 여기에 경남도와 메세나협의회가 매칭펀드를 보태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경남메세나협의회 사업비는 첫째인 2008년 10억3000만 원으로 시작했다. 이후 2009년 13억2100만 원, 2010년 14억1000만 원, 2011년 18억7600만 원, 2012년 22억5800만 원으로 계속해서 증가했다. 2013년에는 23억5800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회원 수도 설립 연도인 2007년 79개 기관이던 것이 이듬해 156개로 급증했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늘어 지난해 말 기준 195개에 이르고 있다. 회원기업과 문화예술단체의 결연 현황을 보면 2007년 10개의 결연팀으로 시작해 2012년에는 81개로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세에 힘입어 협의회는 올해 100팀의 결연을 목표로 정했는데, 현재 80여개 팀 결연이 확정돼 하반기 중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연팀 지원금 현황은 2008년 7억6800만 원(중소기업·도보조금 각 2억7000만 원, 대기업 2억2800만 원)에서 2012년에는 18억600만 원(대기업 3억9400만 원, 중소기업 7억5400만 원, 협의회 5800만 원, 도보조금 6억 원)으로 늘어났다.

기업, 현물·현금지원이 대부분 “메세나지원법 제정되면 지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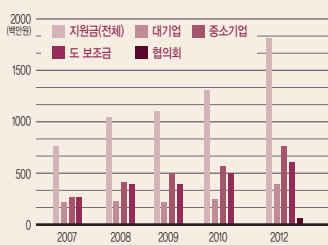
경남발전연구원 한상우 박사가 메세나 기업과 수혜 예술단체의 효과·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서양음악 분야 지원이 21.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술·전시 15.2%, 문화예술교육 13%, 국악 지원이 11%로 나타났다. 기업의 지원유형은 현물 및 현금이 92.3%로 압도적이었고, 지원액수는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6억 원으로 조사됐다. 현금·현물 지원 기업 중 500만~1000만 원이 37.5%로 가장 많았고, 2000만 원 초과(16.7%)가 뒤를 이었다. 기업들이 메세나 운동에 참여하는 가장 큰 목적은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라는 답변이 95% 이상을 차지했고, 이들 기업의 57%가 지역사회 문화예술 활동 지원 또는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지원을 집중하고 있었다.

기업이 결연 대상을 선정하는데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기업문화예술 지원 목적 및 기업 이미지와의 적합성’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기업이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문화예술가 및 문화예술 단체에 대한 정보 부족’, 이어 ‘사내의 문화예술지원 활동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의 70% 정도는 현재 추진 중인 메세나지원법이 제정돼 세액 공제혜택 등 인센티브가 늘어나면 지원을 확대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 메세나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이 밖에 메세나 참여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평판이 개선됐고, 차별적인 고객 관리와 브랜드 이미지 창출 기여, 직원 간 관계 향상과 사기 진작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경남메세나 결연팀 수 증가 현황



경남메세나 결연팀 지원금 증가 현황



메세나 지원, 운영에 큰 도움

이번 설문조사에서 문화예술단체 대부분(75.8%)은 결연기업과의 상호 동반자 관계가 잘 이뤄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보통이다’는 18.2%, ‘아니다’는 부정적인 의견은 3%에 그쳤다. 이들 예술단체가 결연기업에 주는 혜택으로는 ‘결연기업 홍보’가 38.7%, ‘공연(전시) 초대권 제공’ 25.3%,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14.7%, ‘찾아가는 사내공연 제공’ 13.3% 등으로 조사됐다. 지원받는 형태는 현물·현금이 90%를 넘었는데, 2000만 원 이상 단체가 25.8%, 500만~1000만 원 19.4%, 1000만~1500만 원과 1500만~2000만 원 이하가 각각 12.9%로 나타났다. 이들 단체는 지원 수혜금의 효율성 여부에 대해 97%가 도움이 된다고 밝혔는데, 이 중 ‘절대적인 도움이 된다’가 54.6%, ‘많은 도움이 된다’ 30.3%, ‘그럭저럭 도움이 된다’ 12.1% 등으로 집계됐다. 또 지원을 통해 ‘운영 실적 및 공연, 전시활동 활성화’(42.4%)를 가장 큰 혜택으로 꼽았고, ‘문화예술관련 활동 사업화 도모’(36.3%)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다. 한편 예술단체들은 지원 우선 순위에 관해 ‘운영환경이 미약

하지만 열정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경남의 자생단체’를 39.5%로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33.3%는 ‘보유 콘텐츠가 훌륭하지만 타기관·기업의 도움 없이는 활성화가 어려운 단체’를 지목했다.



대기업 참여 확대 위한 지역사회 노력 필요

그동안 지역 메세나 운동은 회원 수와 사업금액, 결연팀 증가 등 왕성한 활동력을 보인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하지만 중소기업 회원은 급증한 반면, 지역 내 대기업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적어 개선점으로 지적받고 있다. 현재 메세나에 참여 중인 도내 대기업은 경남은행과 STX조선해양, 무림페이퍼 등 3개사에 불과하다. 특히 대기업 회원들은 결연팀 수도 많을 뿐더러 지원 규모도 커 영세한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들의 참여가 절실하다. 경남메세나협의회 박덕운 전무는 “대기업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문화예술관련 지원 결정권을 서울에 소재한 본사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며 “혹 지원 권한이 있어도 예산이 극히 제한적인 것도 이유다”고 설명했다. 대기업의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해결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울산의 경우 현대중공업, 현대차, SK, S-에, 울산항만공사 등 대기업군이 지역 문화예술단체와 결연, 활발한 지원을 하고 있다. 박 전무는 “지자체와 대기업이 문화예술 지원이 곧 사회공헌 활동이라는 인식을 갖고, 함께 머리를 맞대 거둔 성과로 알고 있다. 우리 지역도 이 같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메세나 지원의 연속성과 지원 규모 확대를 위해 기업이 메세나를 통해 마케팅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구조적인 변화도 지적됐다. 단순한 목적의 지원으로 이룬 ‘반짝 성과’로는 기업체의 안정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 없는 지역 예술단체 지원책 강구

예술단체는 질적 향상 피해야

기업체가 없는 시·군지역의 예술단체 지원도 시급하다. 이를 위해 예외를 두더라도 결연 지원금의 상·하한 규정을 유연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현재 결연 지원 하한액은 500만 원, 상한액은 2500만 원이다. 상한액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하한금액이 높게 책정돼 있어 500만 원 이하 지원이 불가능하게 돼 있다. 하지만 시·군 예술단체는 당장 100만 원이 아쉬운 상황인 만큼, 하한액 재조정을 통해 보다 많은 단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업메세나 활성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도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 이와 함께 수혜자인 예술단체도 창의성을 높이고 공연 수준을 끌어올리려는 고민을 해야 한다. 우리 지역 메세나 운동을 이끌고 있는 경남메세나협의회도 위상과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데, 계획 중인 세계메세나대회 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뤄내고 회원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이다.

경남메세나협의회 활동의 의의와 전망

황무현 _마산대학교 아동미술교육과교수

박근혜 정부가 야심차게 설정한 국정외제인 ‘창조경제’는 2001년에 발간한영국의 경영 전략가 존 호킨스(John Howkins)의《The Creative Economy》라는 책에서 처음 언급되었다. 존 호킨스는 “창조경제란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경제적 자본과 상품을 창조하는 것”이라 했다. 그래서 결국은 창조경제란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며, 산업 간의 벽을 허문 경계선에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이다.

물론 창의력, 상상력,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선행되어야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문화예술의 가치는 토목산업같이 승수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경제활동이 아니다보니 정부차원의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과 투자는 늘 구호에 그치거나 뒷전으로 밀려나기 마련이다. 이런 가운데 메세나 활동을 통한 기업의 문화예술의 지원과 후원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처음에는 온정주의와 자선적기부에서 시작한 메세나운동은 이제 마케팅과 결합하여 기업의 문화마케팅전략으로 발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1994년 한국기업메세나협의회가 만들어지면서 지역에서도 메세나 운동이 시작되었다. 경남에서도 2007년 경남메세나협의회가 설립되면서 기업의 메세나활동이 시작되었는데, 특히 경남메세나협의회는 중소기업예술지원매칭펀드 지원을 통해서 기업과 예술의 만남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여 경남예술계의 희망 불씨가 되고 있다. 이 사업은 하나의 기업이 하나의 예술단체를 지정 후원하면 그 금액에 비례하여 도지원금을 매칭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 효과가 배가되어 이 사업을 통해서 예술단체는 스폰스쉽에서 상생을 모색하는 새로운 방법의 파트너쉽으로 발전하였다. 알려진 것처럼 기업의 메세나활동은 사회공헌전략으로 기업이 이미지를 제고하거나, 마케팅수단으로 스폰스쉽, 파트너쉽, 아니면 아트마케팅으로 문화제품개발을 통해서 기업이나 제품 브랜드가치를 창출하기위한 마케팅활동이거나 아니면 경영전략으로 활용하는 예술의 창의성 미래지향성, 자기개발 직무교육 등을 통한 생산성향상(경연자원으로서의 기업문화구축)이다. 그러나 지역에서 활동하는 메세나활동의 한계는 여전히 풍족하지 못한 경제여건과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된 우리나라 구조

MECENAT & CREATIVE ECONOMY

적 특징으로 필랜트로피, 즉 기업의 사회공헌활동(corporate philanthropy), 독자활동 단계에 머물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메세나협의회는 예술경영아카데미, 찾아가는 공연, 예술동아리 지원사업 등의 부대사업을 통해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수많은 실업자와 취업 준비생들이 스스로를 잉여라고 생각하는 시대. '잉여'들이 행복해야 '국가 경쟁력'도 생긴다고 한다. 쓰고 난 나머지의 가치, 시장의 논리에 따르면 예술은 잉여가치다. 그러나 이 잉여가치가 바로 문화의 다양성을 만들어 내고, 국가 경쟁력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인류가 놓고 즐기기 위해 만든 문화산업의 기반은 노는 것이다. 노는 것에 대하여 엄격한 우리나라가 유흥에 대한 지나친 혐오를 거두어야한다. 때로는 '건전하지 못한 것'으로 대하기도 하지만 세계적인 석학인 프랑스의 기 소르망(Guy Sorman)교수가 박근혜 정부에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문화에 근거한 중·장기적인 서비스 경제를 만들어 갈 것을 권했던 것에 주목해야한다. 그래서 '문화적 가치'가 경제발전의 근본적인 동인'이라는 주장에도 귀 기울여야한다.

경제에 덧붙인 창조는 무엇일까? 사전적 의미 그대로 '새로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무엇을 새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인가. 상상력과 창의력이 동원된 창조경제

의 모범사례가 요즘 세계를 들썩이고 있는 가수 싸이라고도 한다. 이렇듯 문화의 시대 예술이 '창조'를 넣고 그 결과적 효과가 '경제'로 파급되는 것이다. 문화적 가치가 산업 전반에 스며들 때 창조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에 기반을 둔 정부차원의 지원이 메세나활동으로 이어진다면 이런 메세나활동이 일반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결과에서 밝혀진 것처럼 관의 지원과 기업의 기부가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며, 민간부분의 기부욕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동기부여 정책도 필요하고, 기부자에 대한 조세우대정책이나 민간부분의 기부자에게도 동기를 부여하기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런 까닭에 여러 곳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조세우대정책과 관의 직·간접지원, 대응기부프로그램, 기업이 지원하고 싶은 문화예술단체나 개인에게 지정기부하고 관이 매칭하는 정책은 정부차원에서 확대해서 실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성과를 논하기에 이른 감이 있지만 이제 경남메세나 협의회가 설립된 지 6년이 되었다. 후원 기업들이 늘어나고 많은 예술단체와 예술가들이 경남메세나협의회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회원사 가입을 유도한 덕분에 이제는 경남 문화예술의 희망이 되고 있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문화 없는 경제는 더 이상 생각할 수 없다. 문화와 기업은 파트너 관계이다."라고 한 기 소르망(Guy Sorman)교수의 말처럼 경남메세나협의회와 기업과 예술의 만남 사업이 경남문화예술의 지속가능한 희망으로 이어가길 기원한다.



(주)고구려에서 함께한 브런치 콘서트

메세나 회원기업 임직원들이 바쁜 하루 중 음악 감상을 통해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기획한 '찾아가는 브런치 콘서트' 첫 공연이 열리는 자리다. 회원사 가입 후 활발한 메세나 활동을 펼치고 있는 (주)고구려가 첫 번째 파트너로 함께 했다.



● 정오까지는 10분이 남았다. 우산의 비를 털어내며 혹여 늦을까 했던 우려도 같이 털었다. 공연이 열리는 (주)고구려의 세미나실에 작업복을 입은 직원들이 삼삼오오 자리를 잡는다.



음악을 통한 짧지만 긴 여유

큰비는 아니지만 바람이 실린 비는 우산이 무색할 만큼 충분히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다. '일기예보가 맞다면 잤아들 때도 됐는데...' 하며 하늘을 본다. 무리져 크고 작게 흩뿌리는 모습이 마치, 춤추는 듯도 하다. 5월은 일찍 찾아온 무더위를 시원한 빗줄기로 갈무리한다.

이날 공연에서는 경남지역의 실력 있는 연주자들로 구성된 (사)경남첼버쓰사이어티가 연주를 맡았다. E. Elgar의 '사랑의 인사', Johannes Brahms의 '헝가리안 댄스 5번' 등의 클래식 소품부터 영화 하울의 움직이는 성 '인생의 회전목마', 여인의 향기 'Por Una Cabeza', 드라마 하얀거탑 'B rossette' 등의 OST에 이르기까지 귀에 익숙한 10여곡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더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시간이었다.

행사를 주관한 경남메세나협의회 박덕운 전무는 "많은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고 또 기업의 기호에 맞게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공연 범위를 넓히려 노력하고 있다"며 "이런 기회로 문화예술이 우리 지역사회와 더욱 가까워지기를 바란다."고 기획의도를 밝혔다.

행사를 함께 기획한 경남첼버쓰사이어티 음악감독 차문호 교수는 "관객이 일부러 시간 내 공연장을 찾지 않아도 양질의 음악을 같이 즐기고 감동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좋습니다. 육신을 위한 양식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양식에서 우러나오는 활력 또한 그에 버금간다고 생각합니다. 예술단체와 기업후원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인데 경남메세나에서 이런 기회를 만든 것이 중요하고, 앞으로도 좋은 선례가 될 것입니다."며 감회를 전했다.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객과 연주자가 가까이 있는 음악회는 처음입니다. 거리가 가까운 만큼 친근감이 느껴지고 하나가 되는 느낌입니다. 생활 속에서 자주 듣던 곡에 해설까지 곁들이니 이해도 쉽습니다. 이런 작은 음악회를 자주 접하다 보면 큰 공연장도 부담 없이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연장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라며 관람소감을 말하는 한 관객의 말에 메세나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 문화예술단체를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문화예술이 지역민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노력하는 것도 메세나가 앞장서야 할 일인 것이다.

연주를 들으며 통유리로 된 창 너머를 본다. 경쾌함이 흐르는 공연장 유리 너머엔 아직 비바람이 분다. 격렬하게 몸을 뒤흔치는 나무들.... 마치 어릴 적 만화경속을 보는 듯 낯설고 놀랍다. 음악의 마술이다. 브런치 콘서트의 이름을 내건 첫 실험공연. 준비하는 이도 지켜보는 이도 모든 것을 잊고 다함께 행복해진 마술 같은 시간이었다.





일림나노텍(주) 외국바이어 초청 풍물공연

3월 초 아직은 차가운 날씨 속에서 차세대 정밀기계산업의 선두주자 일림 나노텍에서는 때 아닌 풍물공연이 펼쳐지고 있었다. 이 날 공연은 풍물분야에서 정평이 나 있는 문화두레 어처구니에서 준비한 공연으로, 터키에서 온 해외 바이어들에게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준비한 공연이었다.

심장을 두드리는 풍물소리

중국 산동성에 현지 독자법인을 설립하며 높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차세대 정밀기계산업의 선두주자 일림 NANO-TECH(주)을 찾았다. 꽃샘추위가 채 가시지 않은 3월 초 였지만 일림 NANO-TECH(주)에서는 때 아닌 풍물공연이 펼쳐지고 있었다. 지난해부터 해외 바이어들이 본격적으로 회사를 방문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시작된 행사로, 이 날 열린 공연도 터키에서 온 바이어들을 위해 준비한 공연이었다. 김해 진영의 디엠씨(주) [일림 NANO-TECH(주)의 계열사] 잔디밭은 70여명의 일림 직원들과 바이어들의 열기로 꽃샘추위는 저만치 물러나고 있었다. 기자는 20여년을 거슬러 되살아나는 두드림 본능을 누르느라 한참을 애 먹었다. 세상 어느 나라에 타악기가 없으랴마는, 우리 풍물만큼 강하게 심장을 두드려달까? 자리에 참석한 외국 바이어도 손장단 발장단이 절로 맞춰진다. 피부 빛은 서로 달라도 신명은 같다. 마지막, 함께 어울리는 강강수월래 마당에서 특히 즐거워하는 바이어들... 이 날, 일림 NANO-TECH(주) 직원들은 자

부심을 느꼈다. 딱딱한 기술회의, 세미나 등 뻘뻘한 일정 가운데서 한국의 흥과 문화를 그들에게 잠시나마 보여줄 수 있어서다.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고품격 문화행사

이번 공연은 바이어의 요청이 있었고, 경남메세나가 적극 나서서 풍물분야에 정평이 나 있는 문화두레 어처구니를 연결해 주면서 성사된 공연이다. 한국 전통문화에 즐거워하는 바이어들을 보면서 '회사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한 영업 전략으로 문화행사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는 일림 NANO-TECH(주)의 관계자 이야기에 공감이가 갔다. 덩달아 동석한 기자의 어깨도 으쓱 올라가 있었다. 기업과 예술의 상생. 앞으로 우리 문화를 지키고 세계에 알리는 역할에도 한 발 더 나아가야 할 것이다. 우리의 문화에 자부심을 가지면, 세계의 문화와 소통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천천히 걸어 나가길 바란다.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은 우리의 정체성이다.



문화공연으로 기쁨 더 커진 (주)세노텍 창립기념행사

포근한 봄날 오후, 함안군 대산면 (주)세노텍 제2공장에서 창립 14주년 기념식 및 R&D Center 준공식이 열렸다. 나날이 발전하며 성과를 거두고 있는 세노텍의 경사스런 날을 축하하기 위해 메세나 결연단체인 코리안드림신포니에타가 먼 길을 달려와 축하연주회를 열었다.

편안한 클래식 시간

(주)세노텍은 경남대 강종봉 교수와 제자들이 개척한 사제동행기업(師弟同行企業)으로서 지난 99년 경남대 창업보육관을 모태로 성장한 첨단 세라믹 소재 벤처기업이다. 창립 이후 창의적인 연구개발과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세계 최고 품질의 세라믹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업체로 성장하여 이번에 연구개발센터 등 시설을 대규모로 갖추게 된 것이다. 나날이 발전하며 성과를 거두고 있는 세노텍의 경사스런 날을 축하하기 위해 메세나 결연단체인 코리안드림신포니에타가 먼 길을 달려와 축하연주회를 열었다. 행사가 열린 곳은 공장 앞마당. 평소 공연하는 극장의 잘 갖추어진 무대에 비해 열악한 환경이지만 모두들 기쁜 마음으로 최선의 연주를 펼쳤다. 이날 선보인 곡들은 '사랑의 인사', '헝가리안 댄스', '리베로탱고' 등 우리 귀에 익숙한 밝고 경쾌한 곡들로서 임직원과 가족 모두 클래식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편안한 분위기로 이끌었다. 2012년부터 결연을 맺고 있는 코리안드림은 작년 창립기념식 때도 공연을 열어 큰 환호를 받은 바 있다.

코리안드림신포니에타

박현영 음악감독은 세노텍과의 인연을 이렇게 전한다. "코리안드림신포니에타는 2010년도 경남대 졸업생 및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함께 만든 현악 챔버오케스트라예요. 우리 지역 문화예술의 등불이 되겠다며 희망차게 첫 발걸음을 뗐지만 자금 부족으로 공연활동이나 단체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2012년도 봄에 직접 함안에 있는 공장을 찾아가 강종봉 회장님과 독대를 했어요. 우리 오케스트라가 음악과 졸업생들이 겪고 있는 만성적인 취업난의 해결책이 될 수 있고, 또 학생들을 재교육하고 사회 여러 분야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 사회활동의 장이 될 수 있다고 설득했죠. 마침 강종봉 회장님께서도 대학에 재직하는 교수로서 제자들을 돕고, 트레이닝시키는 데 가까이 동참하시겠다며 지원을 약속하셨고, 이후로 계속 지원을 받고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에 저희도 회사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공연지원을 하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려 해요."

생각에 잠겨 걷다가

경로에서 벗어난 자신을 발견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

조금 돌아가면 된다.

그게 아니라면 왔던 길로 되돌아가보면 되고,

잠깐의 실수나 손해는

나를 찾아가는 길고 긴 평생의 여정에 비하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걷는다.

한상복 <지금 외롭다면 잘 되고 있는 것이다> 중에서

Interview :

Joonpyo Hong

홍준표
경상남도지사 /
경남메세나 명예회장

인터뷰



Q 01 경남을 최고의 지방자치단체로 만들기 위해 많이 바쁘실 텐데요. 어떤 활동들을 해오셨는지요?

취임 이후 ‘당당한 경남시대’를 열기 위해 도정의 현안을 파악했습니다. 도민들을 만나 여망이나 도정에 바라는 방향 등에 대해 많은 의견도 들었죠. 특히,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경남은행, KAI, 농협 등과 MOU를 체결하고, 통영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확대 등 청년일자리 창출과 서민을 위한 도정에 최우선을 두었습니다. ‘당당한 경남시대’는 서민을 먼저 챙기고, 깨끗한 도정이라야 가능합니다. 힘 있고 정의로운 경남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Q 02 혹시 그 동안 짬을 내어 연극이나 영화를 보시거나, 음악회·전시회에 다닌신 적은 있는지요?

제가 도지사로 부임 후 각계로부터 ‘문화도지사’가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있습니다. 문화와 예술이 배려와 소통을 이끌어내어 우리 사회를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윤활유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연극이나 영화는 자신과의 소통을 넘어 타인과 교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장르기도 합니다. 앞으로 틈틈이 시간을 내어 도민들과 함께 연극이나 음악, 미술작품을 감상하면서 문화예술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또 우리 도의 문화예술 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 도민들의 삶이 풍요로워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Q 03 홍준표 도지사의 문화정책 핵심 키워드는 ‘도민의 고품격 문화생활 향유’라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경남은 지리적으로 문화관광 자원이 풍부하고, 전통문화예술도 잘 보존되어 있고, 문화예술인들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서울에 비하면 문화향유 측면에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도민들이 문화예술을 마음껏 향유할 수 있도록 시·군단위에 산재한 예술단체를 발굴·후원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창작 및 공연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서울까지 올라가지 않아도 항상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해나가고자 합니다.

Q 04 도민고품격 문화예술 향유! 문화예술인에겐 당연한 일 이겠지만, 먹고 살기 바쁜 도민들에겐 좀 힘겨운 숙제가 아닐까요?

그렇지요. 일부러 시간 내 멀리 가서 문화생활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 예술단체 지원을 통해 공연을 활성화하고 또 직장이나 일터로 찾아가는 공연, 주말 공연 등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별, 직장별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여 모두가 자연스럽게 문화예술을 누리는 ‘문화경남’을 만들어가려 합니다.

Q 05 모든 문화예술은 세계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지역성도 갖기 마련입니다. 우리 경남의 문화예술이 세계성과 지역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요?

문화예술의 근본은 세계성이라기보다 지역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문화예술이 타 지역으로, 다른 나라로 자연스럽게 확산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경남지역도 훌륭한 문화예술이 많아서 세계시장을 주름잡을 날이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우리 가곡이나 오페라, 연극, 문학이 이미 세계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서울의 비싼 문화예술을 가져와 공연하는 것도 때로 필요하겠지만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공연 비중을 높이고 후원해서 작품수준을 높여야죠. 그렇게 수준 높아진 공연을 도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Q 06 취임직후 첫 대외행사로 메세나 대회에 참석하실 만큼 경남메세나에 대해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평소의 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남메세나협회가 ‘기업과 예술의 아름다운 동행’이란 슬로건으로 첫 발을 내딛은 지 5년이 지났다고 들었습니다. 출범 당시 79개 회원사가 지금은 195개로 늘었고, 그간 총 61억 원의 매칭 펀드 사업비를 확보하여 265개 예술단체와 결연을 맺고 지원해 왔다고 들었습니다. 또 결연에 참여한 예술단체들의 찾아가는 공연활동과 문화나눔 사업 등을 통해 회원사와 도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하구요. 물론 도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지만 재정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경남메세나협의회 회원사들이 잘 메워주고 있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내 기업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해 도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정책의 핵심 키워드인 도민의 고품격 문화생활 향유를 위해

시·군단위에 산재한 예술단체를 발굴·후원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창작 및 공연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일부러 서울까지 올라가지 않아도 항상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해나가고자 합니다.

Q 07 경남메세나협의회와 경남도의 매칭펀드 지원 사업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지사님만의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경남메세나협의회와 메세나 운동이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새로운 모델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경남도와 협력하여 시행 중인 기업과 예술단체의 매칭펀드 결연 사업은 이미 성공적으로 정착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보다 많은 예술단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자금이 지금보다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리고 그 자금이 예술단체의 창의성과 공연수준을 높이는 데 직접적인 역할을 하도록 지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중견기업들이 많지 않은 시·군 지역에서는 매칭펀드 최소 지원금을 후원하는 업체를 찾기가 쉽지 않기에 지원 최소 단위의 금액을 융통성 있게 하향해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업 외의 개인이나 단체도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문화예술 후원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나 경남도에서도 세제지원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기업들의 문화예술단체 후원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입법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Q 08 부산·울산 지역은 대기업 참여가 많은데 우리 경남도에 위치한 대기업의 문화예술지원 참여는 다소 저조한 편입니다. 대기업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가 필요한데, 도지사님께서 어떤 역할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울산·부산에 비해 우리 경남도에 위치한 대기업들은 지역문화예술단체 후원에 소극적이고, 극소수 기업만 참여한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유를 파악해보니 대기업 본사가 서울에 있어서 의사결정권이 없다거나, 본사에서 운영하는 문화재단이 있어서 지방문화예술단체 후원이 제한된다는 등의 이유로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거기다 우리 지역 대기업들의 지역문화예술단체 후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기업의 지역문화예술지원을 통한 사회공헌활동은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대기업 직원이 우리 경남도민이고 이들의 삶의 원천이 이 지역 문화예술인데 대기업이 지역 문화예술에 소홀하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 차원의 홍보가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대기업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방안을 수립해나갈 계획입니다.

MECENAT CEO

디케이락 노은식 대표이사

사회와 문화예술의 발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글 진강숙 사진 구본수



이 글을 쓰는 기자(나)는 참 게으르다. 발등에

불 떨어지지 않으면 무엇이든 미루기 일쑤다.

하지만 놀고먹는 것에 게을러 본 적은 없다.

아니, 세상 누구보다 “까르페 디엠(Carpe

diem : 지금을 즐겨라)”을 외치며 살았다. 지

금부터 소개할 내용은 기자가 자신의 허접한

농땡이 철학의 한 부분과 통하는 사람을 만

나면서 정신이 번쩍 든 이야기다.

지금

옛 사람들이 말했다. 頓悟漸修(돈오점수). 얼음이 녹아 물이 된다는 것을 알아도, 자신의 몸을 녹이는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아는 것만 못하다고, 지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를 하는 이

유는, 계장·계측장비용 피팅과 밸브를 생산하는 김해 일반산업단지의 디케이락(주) 노은식 대표 때문이다. 과감한 투자와 말 빠른 연구개발이 뒷받침된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는 디케이락은 조선 및 석유화학 플랜트, 발전설비 및 반도체 등의 산업에서 쓰이는 장비를 만든다. 우수한 품질로 유럽이나 미국에서 많이 쓰이기에 수출 비중이 내수를 넘어서는 글로벌 기업이다. 김해 주촌면 내삼리 공장에 이어 김해일반산업단지의 신축공장이 본격 가동하며 디케이락은 지난해 500억 매출 대비 40%이상의 성장을 기대하는 등 새로운 비상을 기대하고 있다. 210여명의 임직원이 함께하는 디케이락의 노은식 대표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직원이다. 직원들이 아침마다 즐겁게 출근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했다. 답은 한 가지, 복지였다.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지금'을 실천했다. 2010년 시무식은 전 직원이 태국에서 함께 했다. 자녀 고교 학비는 전액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자녀 대학진학 시 연간 400만원씩 지원, 출산장려지원금과 자각증 취득 축하금 등 중소기업에선 보기 드문 복지정책을 펼친다. 준비된 인재를 채용해

쓰기보다 입사한 직원의 발전을 더 지원하니 입사 경쟁도 치열할 듯하다. 주식 상장 전 직원들에게 주식을 나누어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니 농담처럼 한마디 한다. “나도 사람인지라 혹시라도 주식급등하면 욕심이 생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욕심 생기기전에 얼른 나눠줬죠.” 욕심이 아닌 직원들과의 약속이기에, 미루기보단 '지금'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거래처와의 외상도 없다.

메세나 가입 계기

몇 해 전부터 관심은 있었지만 딱히 계기가 없었다. 그러던 차에 삼원테크(주) 이택우 대표의 권유를 받았다. 사업초기부터 관계를 맺으며 서로에게 도움을 주었던 관계이기에 흔쾌히 수락했다. 가입하고 바로 매칭펀드 결연사업에 참여하여 김해지역의 전통예술단체인 김해민속예술보존회와 김해석전놀이 두 개의 단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노은식 대표에게 메세나는 생소하지 않다. 이름은 다르지만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미래자금을 넣고 있다. 누구하나 손 내미는 이 없는 천애고아들을 위해 부모가 적금들 듯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미래자금을 모은다. 물론 10억 규모의 장학재단 운영 등 다른 사회공헌활동 또한 솔하다.

네팔

지난해 가을 코스닥 CEO 포럼이 주최한 안나푸르나 여행. 그곳에서 엄홍길 휴먼재단에서 짓는 학교를 보았다. 네팔에 14개의 학교를 짓는 것이 목표란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였다. 그리고 14개 목표 학교 중 8번째 학교를 디케이락에서 짓기로 했다. 2014년이면 디케이락이 설립 30주년이 되는 해다. 네팔의 미래를 위한 학교를 짓는 것보다 더 큰 기념이 없을 것 같아서 결정했다. 네팔 학교와 디케이락을 결연해 기술도 가르칠 생각이다. 해방과 전쟁 후, 외국의 도움으로 한국의 미래를 위한 학교가 세워지고, 인재가 길러졌듯.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귀감이 되고 있는 노은식 대표, 사회가 발전하면 문화예술도 같이 발전해야 하고 기업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문화예술단체는 발전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기에 기본 좋게 기업의 의무를 진다. 메세나를 통해 내 몸담은 지역도 챙기고 고향도 챙기고 싶은 마음을 살포트 드러내는 노은식 대표, 이제 메세나의 든든한 지원군이다.

노은식 대표를 만나고 돌아온 저녁, 기자(나)는 그와의 만남을 단숨에 써내려갔다. 미루지 않고... 그것이 노대표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였다.





김정호 단장 과 정영식 대표이사



MECENAT CEO

(주)범한산업 정영식 대표이사

예술을 즐기며 인생의 풍요로움을
모두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글 진강숙 사진 구본수

5월의 햇살 가운데 서면 누구라도 눈부시게 빛날 것 같다. 쏟아지는 봄 햇살을 받으며 경남 관악단과 첫 매칭 결연을 맺은 범한산업으로 가는 길은, 마치 소풍이다. 설레던 만큼 빨리 도착해버렸다. 약속시간이 멀었다. 잠시 (주)범한산업과 정영식 대표에 대해 생각해본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 마산자유무역지역 제2공구에 있는 ‘공기압축기 분야 세계일류기업’을 이끌고 있다는...

청년창업

1990년, 정영식 대표의 나이 서른이었다. 당시 선박에 들어가는 공기압축기가 전량 수입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 창업을 결심했다고 한다. “1989년 창업지원법이 제정돼 자본이 없는 이들도 정부 지원을 받아 회사를 만들 수 있었어요. 일종의 벤처캐피털 격인 창업투자회사가 설립돼 기술력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가 개설한 창업자 양성과정에도 등록해 착실하게 준비하고, 사업계획서를 냈죠. 당시 7억 원 가량 융통했으니 적은돈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모한 도전을 가능한 도전으로 바꿨다. 세계 최고의 공기압축 제품을 구입해

분해하고 역설계하며 기술을 익힌 그는 당시 정부가 추진한 정책을 잘 활용했다. 국가 계획조선, 즉 국적선을 건조하게 될 경우 일정부분 국산제품을 장착하도록 하고, 수입가격 급등에 대비한 부품도입선 다변화 권장정책을 활용해 범한산업의 기술력을 검증을 받았다. 창업 당시 정영식 대표가 역설계 했던 유럽과 네덜란드의 내로라하는 압축분야 기업들이 이젠 범한산업의 제품을 구입해 역설계 한다니 그 동안 공기압축분야에 대한 그의 노력을 짐작할만하다. 지금의 세계 일류 범한산업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최근 위성발사에 성공한 나로우주센터에도 발사 시뮬레이션용 공기압축기를 납품했다.

환원

‘아름다운 가게’와 ‘장애인복지관’ 등에 연간 2억 원 범위의 장학금과 후원금을 기탁하고, 대통령배에서 3연패한 경우마 ‘당대불패’ 마주로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상금 2억 원을 기부하며 ‘아너소사이터 회원’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 기숙사와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고 예기치 않은 질병과 사고를 당한 직원들에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가정이 붕괴되지 않도록 회사가 일정한 책임을 지는 등 사원 복지에도 각별히 신경 쓴다. 특별한 계기가 있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없다’는 답이 돌아온다. 그의 어릴 적 모습이 공금해진다. 정 대표는 1960년 의령의 형제 많은 보통 가정에서 태어났다. 아니, 종갓집 5대 종손이니 평범하진 않다.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 했던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기만 내세우기보다 주변을 돌아보고 챙기라.”는 이야기를 항상 듣고 자랐다. 이날이 마침 어버이날이라 외로운 어르신 600여분의 점심 식사를 대접하고 오는 길이었지만, 그는 당연하다고만 여긴다. 사회 환원에 특별한 계기가 없다는 그의 말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그에겐 생활이다.

물질적 풍요? 이젠 정신적 풍요로움!

올해 경남관악단(단장 김정호)과 첫 메세나 결연을 이룬 정영식 대표는 사실 오래 전부터 경남관악단을 후원해 왔다. 2009년 2월 관악단 창단 때부터 꾸준히 후원해온 인연을 이번에 메세나 결연으로 이름을 바꾼 것이다. 경남권 대학생과 전문연주인이 모인 경남관악단은 “어쩌면 재미없다 여길 관악이기에 전문보다는 퓨전을 더하면 거리감 없이 좋을 것 같다”는 정대표의 조언을 받아들여 공연마다 관객의 즐거움에도 신경을 쓰는 중이다. 또 한 가지, 경남 관악단의 공연은 무료공연이지만 자선공연으로 운영된다. 무료공연을 보고 원하는 만큼 후원을 하면 모금 전액이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게 전달된다. 정 대표의 후원 릴레이 아이디어다. (경남관악단은 현재 6월 28일 창단 제 7회 공연과 11월 29일 8회 공연을 앞두고 있다.)

해외 출장을 가면 낮에는 업무를 보고 밤엔 거리를 누닌다는 정영식 대표, 사업초기 러시아 국영조선소가 있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장 때 <마린스키>극장에 갔다. 2차 대전 당시 독일군에 고립된 러시아인들이 발레를 보기 위해 굶어 죽어가면서도 줄을 섰다는 곳. 발레와 오케스트라와 오페라가 항상 공연되고 늘 자리는 꽉 찼다. <마농>전곡을 본 이방인은 성별과 나이를 떠나 함께 울고 웃는 관객을 보았다. “예술이란 것이 사람에게 이런 감동을 주는구나.. 방대한 스토리에 같이 빠져들어 즐기고 감동하는 것... 이것이 행복이구나..” 이 경험은 불가리아 소피아도 마찬가지였다. 국민 평균소득을 따져도 당시 한국보다 훨씬 밀들던 나라의 국민들이 매일 밤 극장에 모여 그들의 ‘회노애락’을 마음껏 충족시키는 모습에서 인생의 여유와 풍요로움을 느꼈다. 그때 우리나라도 물질풍요와 문화의 풍요가 어우러지기를 바라며 새로운 목표가 생겼을까? 이야기를 나눌수록 정영식 대표가 앞으로 펼쳐나갈 메세나 활동에 큰 기대를 갖게 된다.



VISITING PERFORMANCES OF MECENAT



진주복지원에서 함께한

행복나눔 음악회



‘가정의 달’이란 이름으로 5월이면 더 외로워지는 이들이 있다. 수많은 사연으로 가족과 함께할 수 없는 이들이다. 진주복지원 또한 외로운 이들이 모인 곳일 거라 짐작했다. 하지만 이곳에서 하루를 보내며 생각이 달라졌다. 진주복지원은 가족과 잠시 떨어진 이들이 새로운 가족을 이루고, 행복을 만들어 서로에게 나누어 주는, 이름 하여 ‘행복충전소’였다.

햇살이 반짝이던 봄날의 어느 토요일 오후, 진주 문산을 삼곡리 제곡마을에 들어서자 풍경화 같이 아름다운 산과 들을 배경으로 자리한 다양한 복지시설들을 볼 수 있었다. 그중 유독 눈에 띄는 예쁜 집이 있다. 천주교마산교구 재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진주복지원이다.

행복나눔 신명나는 음악회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경남메세나협의회와 한국항공우주산업 품물동아리 '민에는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나눔 신명나는 음악회'를 준비했다. 진주 지역에서 처음 열리는 행사라 기대가

크다. 백 여 명의 복지원 가족들이 강당에 모인 가운데, 공연이 시작되었다. 풍물 동아리 ‘민예’의 흥겨운 길놀이와 삼도사물놀이에 이은 임일숙 선생의 입춤은 남도굿거리 장단에 맞춘 기품 있는 자태로 한국 춤의 진수를 보여주었고, 김귀수, 한옥자 선생은 남도민요 메들리를 통해 새타령, 성주풀이, 진도아리랑 등 익숙한 민요들을 구성지게 불러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모두 일어나 어깨 들썩이며 벌어진 춤판엔 장에도 소외도 없었다. 그저 오랜 세월 우리 한민족 DNA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는 신명이 함께 할 뿐이었다.

자원봉사자가 아닌 가족

행사를 함께 진행한 박민선 복지사는 “이곳에 봉사 오시는 분들은 직원 보고 싶어 오시는 분 없어요. 같이 지내는 식구가 보고 싶어서 온다고 해요. 계산 없고 꾸밈없는 우리 식구들과 함께 지내며 봉사자분들도 치유를 받는다고 생각하시거든요.”라고 말했다. 그리고 보니 기자 또한 이곳에 도착한 순간부터 떠나는 시간까지 마냥 즐거웠다. 음악회의 신명과 더불어 해맑게 먼저 다가와 인사 건네고 손 맞잡는 진주복지원 ‘식구’ 때문에.

풍물동아리 민예

오늘 행사에 공동주관으로 참여한 한국항공우주산업 동아리 '민예'는 1995년 우리 전통음악을 사랑하는 네 명의 직원으로 소박하게 창단하여 현재 25명 회원을 가진 여전한 전문 풍물단체로 성장했다. 20여년 동아리 활동을 이어오며 음악을 통한 기쁨은 물론 봉사하며 느끼는 보람을 큰 가치로 여기게 된 가족 같은 사내 동아리다. 2년 전 경남메세나협의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시행했던 예술동아리 지원 사업에 참여하면서 맺은 인연이 이날의 아주 특별한 공연으로 이어졌다. 문화봉사를 통해 소외이웃들과 흥을 나눌 수 있고, 또한 무대에서 갈고닦은 솜씨도 뽐낼 수 있어 행복하다는 이들을 보며 역시 메세나 가족이라는 생각이 든다.

매년 문화나눔 사업을 통해 경남도민의 문화복지 향상에 앞장서고 있는 경남메세나는 앞으로도 회원사와 함께, 더 먼 곳으로, 더 많은 소외 이웃을 찾아가 웃음을 선사할 계획이다.

2013 경남메세나협의회 포럼

A PENAL EXILE NAMHAE

유배의 땅 남해를 가다

글 진강숙

유배문학을 찾아 떠나는 여행의 첫걸음

2013 경남메세나포럼의 시작은 남해의 입구에 위치한 관음포(觀音浦)였다. 이곳은 임진왜란의 마지막 전투이자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해전이 있었던 곳이다. 남해대교 밑 노량해협에서 시작된 전투가 이곳 관음포에서 끝났다. 이순신 장군의 시신도 이곳 관음포에 내려졌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장군의 목숨이 떨어진 바다”란 뜻에서 이곳을 ‘李落波(이락파)’라 부르고 그의 후손들은 사당을 지어 ‘李落祠(이락사)’라 명명했다. 사당 안에는 故박정희 대통령이 친필로 현판을 썼다는 비각이 있다. 비각 속에 무심하게 서 있는 유허비는 ‘有明水軍都督朝鮮國三道統制使(유명수군도독조선국삼도통제사)’로 시작한다. 왜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살다갔건만 명나라에 속한 수군으로 기록에 남았다니... 쓴웃음이 지나간다. 어느 눈부시게 맑은 날 핏빛 전쟁이 일고, 또 어느 날에는 생계를 짚어진 어부가 낚시를 드리웠을 바다... 치열한 삶과 죽음을 기억하는 아직도, 바다.

새벽부터 낮게 가라앉아있던 구름이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비를 뿌린다. 부자가 흉년에 곳간을 열듯, 하늘은 제 몸을 가르고 오래 메말딘 땅을 눈물인 듯 적신다. 길 떠나는 이들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가 비라고 하지만 이날은 달랐다. 봄비를 머금은 온갖 생명체들이 반짝반짝 윤기를 회복하며 춤을 추기 시작하고, 차장에 부딪치는 빗방울 소리가 마치 슈만의 교향곡 1번 ‘봄’처럼 경쾌하기까지 하다. 같은 속도로 부지런히 빗방울을 털어내는 차창 밖으로 기억 속 깊이 묵혀두었던 흙 내음이 살아난다. 온몸으로 기분 좋은 전율이인다. 이대로 차가운 비를 맞아도 괜찮을 기분.

남해 유배문화관과 노도

고려부터 조선까지 200여명의 유배객이 다녀갔던 곳에 국내 최초, 최대 규모의 유배문화관이 섰다. 그 유배객 속에 <사씨 남정기>와 <구운몽>, <운씨부인 행장>등을 쓴 서포 김만중 선생이 있다. 유배문화관은 말 그대로 유배와 유배문학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얻는, 유배를 재조명 하는 성지다. “유배를 재조명 한다...” 곱씹다가 메세나 포럼에 참가한 어느 분의 이야기가 떠오른다. “말은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는 시대라, 글 깨나 읽는다는 사람은 모두 서울로 갔지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유배’라는 이름으로 내로라는 지식인을 전국팔도 파견을 했네요. 그 덕에 도서벽지까지 골고루 높은 정치와 학문을 배우게 된 거지요~!” 유배의 전성기(?)라 불리던 숙종 시대, 지식의 상향평준화를 이루어 낸 그의 선견지명에 경의를 표해야 할까?



유배문화관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一點仙島南海(일점선도남해)’라는 글귀다. 한 점 신선의 섬 남해? 신선처럼 살아서가 아니라 유배되어 ‘草根木皮(초근목피)’로 연명하며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다보니 신선의 격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대부분이 당쟁의 희생양이었던 유배객들. 그들은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고뇌에 사로잡혔을까?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생각을 접고 어느새 맑게 갠 하늘을 올려본다. 어선을 빌려 뒀다. 저만치 서포 김만중 선생이 마지막을 보냈던 ‘檣島(노도)’가 가까워진다. 생김새가 마치 삿갓을 얹어 놓 것 같다하여 ‘삿갓 섬’으로 불렸지만 왜란 당시 수군이 쓰는 노를 이곳에서 만들었다 하여 노도로 불린다. 한양에서 천리 길을 노 젓는 배를 타고 남해로 들어온 서포 김만중은 여기서 다시 배를 타고 노도로 들어갔다. 고작해야 몇 가호가 전부인 그곳이 그의 유배지였다. 풍족할 리가 없다. 누군가는 유배지역의 풍경과 문화도 익히며 섬 남해를 알리는 책을 펴냈지만, 그는 ‘圍籬安置(위리안치)’의 형을 살았다. 집을 둘러싼 탕자나무 가시울타리 속에서 나올 수 없었다. 푸른 바다를 코앞에 두고도 만질 수 없이, 그저 한 칸 초기의 몇 걸음 마당이 전부였다. ‘위리안치’의 형을 모른 혹자들은 그를 ‘목고 노자 할배’로 불렀다 한다. 먹고살기 위해 눈을 일구거나 고기 잡으러 나다니지 않고 그저 울타리 안에서 글만 써대니 속 모르는 이는 그리 오해할 수도 있겠다 싶다. 문득, 인도의 시인이자 사상가인 ‘Tagore(타고르)’의 일화가 떠오른다. 마당 쓰는 하인이 몇 시간 지각을 하자 화가 난 타고르는 빗자루를 집어던지며 그 자리에서 그를 해고했다. 그러자 하인은 타고르가 던진 빗자루를 잡으며 한마디 한다. “죄송합니다. 간밤에 팔애가 죽어 아침에 묻고 오는 길입니다.” 유배당시 그가 꺾다는 300년 넘은 웅달샘을 들여다본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그의 문학이 빛나며 살아있는 것처럼 주인은 떠났지만 그의 샘엔 노도에 뿌리내린 생명이 꿈틀, 깃들어 있다.

남해 명소 : 남해국제탈박물관, 바람흔적미술관, 독일마을

비는 멎었지만 4월 하순의 꽃샘추위는 매섭기만 하다. 장난삼아 스마트폰으로 날씨를 검색하다 깜짝 놀랐다. 그 시간 내륙에선 눈이 내리고 있었다. 저절로 옷깃이 여며진다. 700여점의 탈과 수천 여점의 사진자료와 포스터를 간직하고 있는 남해 국제탈공원박물관. 경남메세나 가족과 남해의 바람을 만나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 냈던 바람흔적 미술관, 1960년대 산업역군으로 독일에



파견되어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독일교포들의 정착과 관광지개발을 위해 조성된 독일마을을 둘러보았다. 고향에 대한 향수는 이렇듯 상품으로 성공했지만, 정착 삶의 터를 잡은 이들은 많지 않다. 오랜 시간 생겨난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독일 마을에서 뺨놓을 수 없는 한 가지, 독일마을에서 내려다보는 물건리 방조림이다. 400년 가까운 세월, 풍랑으로부터 마을을 지켜주고 있는 바다숲에서 눈길을 땔 수 없다. 이곳 사람들은 해마다 이 숲에 제사를 지낸다 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오늘의 포럼을 다시 생각한다. 경남메세나 기업과 문화예술단체도 이렇게 어우러져 살며 오래도록 서로를 지켜주었으면 하고.

지족해협 죽방렴

오늘의 마지막 목적지다. 남해의 명승지 세 곳이 가천 다랭이 마을과 남해 금산, 그리고 이곳 지족해협 죽방렴(명승 제 71호)이다. 대나무 어사리라 하는, 참나무와 대나무를 이용한 막물을 개펄에다 박고 역방향 조류를 이용하는 원시 어업 죽방렴. 그 기원을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문헌상에는 500년 전부터 이루어졌다 한다. 진도 울돌목 다음으로 물살의 흐름이 빠르고 수심도 깊어 바닷물이 들고 날 때는 쉼췌~ 췼췌 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라고. 해류를 따라 멸치들이 어떻게 모이는지, 어째서 빠져나갈 수 없는지, 그리고 은빛 멸치 떼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百聞不如一見(백문불여일견)’의 진리를 되새긴 귀한 시간이었다. 세계 어디를 가든, ‘그 곳’이 아니고서는 맛볼 수 없는 음식들이 있다. 남해는 멸치 회다. 남해의 대표 산물인 멸치는, 5~6월이 산란기라서 봄엔 금어기로 정해 두었다. 그러면 봄 멸치는 어디서 나올까? 간단하다. 가까운 바다에서는 그물을 던져 멸치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이고, 일정한 곳에 설치해두는 정치망이나 죽방렴으로는 잡을 수 있다. 그래서 봄 멸치회는 ‘그 곳’ 남해에서만 느낄 수 있는 별미다.

경남메세나포럼

이순신 장군과 서포 김만중 선생, 두 巨人的 흔적을 쫓았던 2013 경남메세나 협의회는 남해 포럼. 지년간 시대의 흔적은 유배문학만이 아니었다. 그들의 부모와 조상에 대한 ‘禮(예)’는 남해의 문화도 바꾸었다. ‘떡국제’와 ‘그믐제’가 그것이다. 죄를 지었든 아니든, 죄인의 몸으로 떠나는 유배길. 조상에 대한 예

는 갖추고 싶으나 관아와 주변의 눈치가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전날 밤 몰래 제사를 모시고 차례를 지냈다. 설날 아침엔 떡국 한 그릇으로 조출한 차례를 모셨다. 忠孝를 최고 덕목으로 여기는 시대니 만큼, 떡국 한 그릇 올린 차례상을 두고 왈가왈부할 이는 없었을 듯하다. 그리고 “하셨는가?” “하시게.” 등의 남해 말투다. 작가의 개인적 상상이지만, 나름대로 한 시대에 내로라했던 200여명의 유배객들의 신분이 열쇠이지 않을까? 나름 중앙 요직의 인물들이었으니 섬 동네 유배지에 자신보다 더 높은 벼슬아치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죄인의 신분이니 마음 놓고 반말을 할 수 없던 그들은 말끝마다 “하시게~!”, “했는가~?”했을 것이다. 남해 평민들의 말투도 자연 따라가지 않았을까?

남해 유배문화의 꼬트머리를 살짝 만져본 2013 경남메세나포럼, 유배문화관에서 본 <희망의 줄>이 어른거린다. 유배객들이 임금을 향해 ‘누명을 풀고 어서 나를 데려가 주오’하는 희망을 담은 줄. 첫 느낌은 ‘희망 고문’인가 했다. 이내 ‘유배 문화의 뿔줄’이라는 생각에 이르렀다. 그 줄이 있었기에 많은 이들이 희망을 붙들고 글을 써내려갔고, 그로 인해 찬란한 유배문학이 태어날 수 있었으니 말이다.

날씨는 여전히 춥고, 무거운 하늘은 해넘이로 인해 더 어둡기만 하다. 하지만 메세나포럼으로 함께한 남해의 소중한 기억과 풍경은 시간이 갈수록 더 아름답게 자리할 것이라 믿는다. 오랜 세월 빛나는 유배 문학처럼...

Artist Story
Yoo Tackryul



흑백다방에
흐르는

유택렬 화백의 숨결

글 / 사진 박서영

진해의 사월은 벚꽃과 함께 시작되고, 벚꽃과 함께 그리움에 젖어든다.

올해 벚꽃은 기후의 영향으로 다른 해보다 더 짧게 피었다가 떨어져 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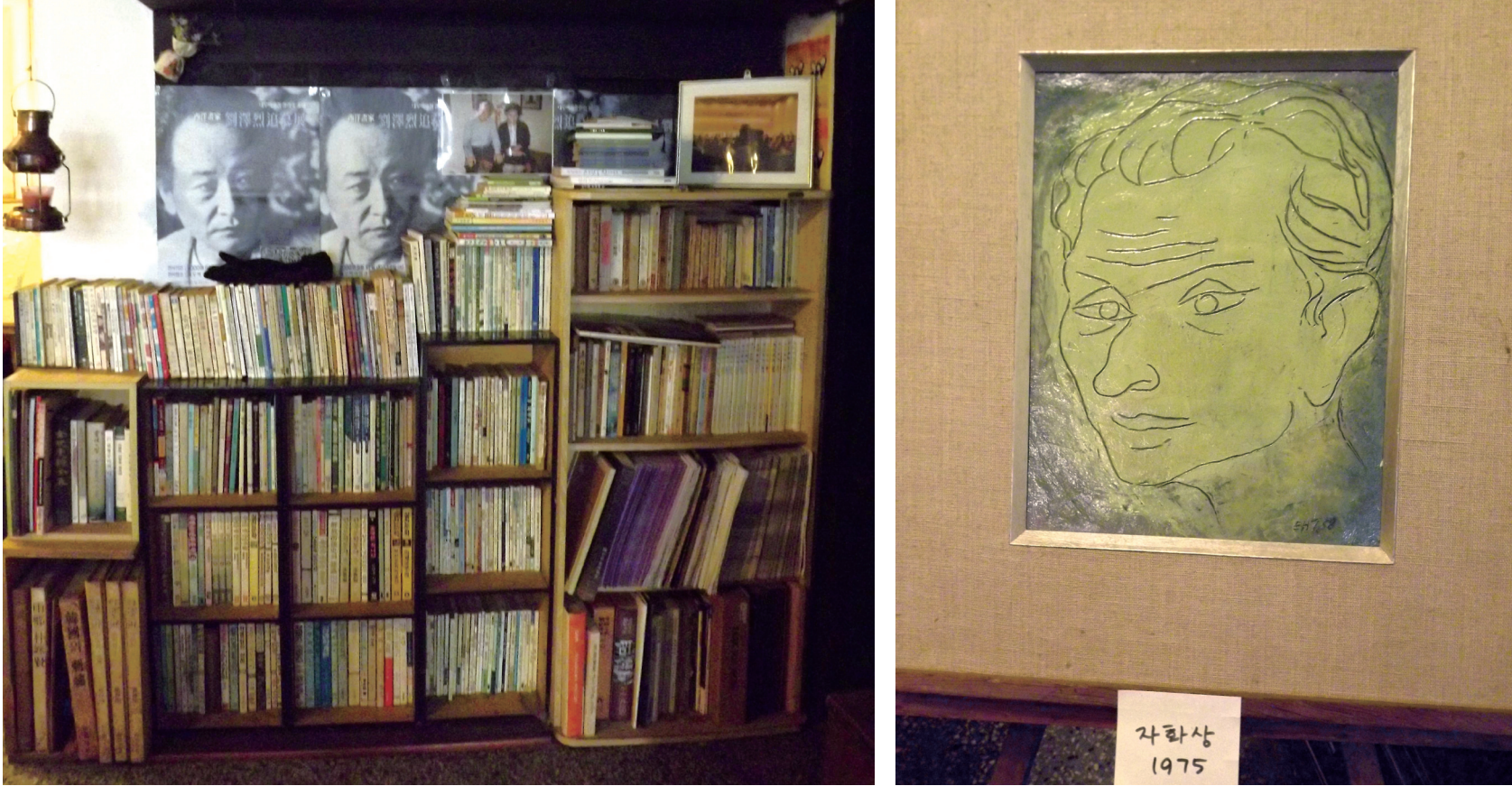
유택렬 화백의 흔적을 더듬기 위해 진해 흑백다방에 도착했을 때

하얗게 피어난 벚꽃은 꽃샘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너무 빠른 낙화였다. 경화역과 여좌천을 한 바퀴 돌고, 흑백다방을 찾았다.

흑백 since 1955 - 흑백의 세월을 알려주는 표시가 만개한 벚꽃 사이로 보였다.





흑백다방의 숨결

1950년대! 한국전쟁이 끝난 후의 풍경을 나는 모른다. 진해에 갈 때마다 나는 근대 문화 속으로 여행을 다녀오는 기분이 든다. 진해는 일본에 의해 계획된 도시다. 해상과 육로를 잇는 일제강점기와 해방, 6·25전쟁의 흔적 등이 아직도 남아있고 일본의 가옥문화도 엿볼 수 있어 귀중한 자료들이 많은 곳이다. 그래서인지 ‘장육거리’라 불리는 곳엔 아직도 일본식 2층 목조주택들이 많이 남아있어 독특한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중원 로타리를 끼고 주택가 골목을 돌아서면 빗나무에 가려진 ‘흑백다방’이 보인다. 흑백다방은 1952년 ‘갈렌’이라는 고전음악다방을 1955년 유택렬 화백 부부가 인수하여 반가운 손님을 의미하는 ‘까치’를 상상하며, 상호를 ‘흑백다방’으로 바꾸었다. 흑백다방은 그 시대 예술인들의 사랑방 역할을 했었는데, 이름만 들어도 가슴을 설레게 하는 청마 유치환, 김춘수, 서정주 시인과 화가 이중섭, 전혁림, 음악가 윤이상 등이 드나들었다고 한다. ‘흑백’에 들어서자 아직도 그들의 숨결이 들리는 것 같았다. 유택렬 화백이 생전 좋아했다는 베토벤이 흐르는 ‘흑백’에서 그들은 각자의 창작 혼을 불태웠을 것이다. 유택렬 화백의 아내이자 고미술품 수집가였던 이경승씨는 화가의 작업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사실상 ‘흑백’의 운명을 맡았던 화가의 아내는 남편의 창작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운 것이다.

지금은 유택렬 화백의 딸이며 피아니스트인 유경아씨가 ‘흑백’을 지키고 있다. 4월 군항제 기간에 유택렬 특별전이 열리고 있다. 흑백의 문을 열고 들어서자 유경아씨가 반갑게 맞아준다. 몇 가지 질문을 던지자 아무렇지도 않은 듯 톡톡 대답을 던진다. 차창 밖의 햇빛이 지듯 톡톡 던지는 대답엔 ‘뭘 그런 걸 묻느냐. 이미 다 알고 있지 않느냐’는 무언의 말이 들어있는 듯하다. ‘흑백’의 간판이 내려지자 지역의 예술가들이 ‘흑백’살리기 운동을 벌였고, 여기저기 인터뷰 기사나 촬영이 많았던 탓일까. 하긴 나 역시 ‘흑백’의 소문은 이미 많이 들었다. 그러나 예술가 중심의 운동이다보니 실제로 ‘흑백’을 살리고, 유택렬 미술관 하나 진해에 세우는데 미흡한 게 사실이다. 많은 시인들이 ‘흑백’에 대한 시를 썼다. 정일근 시인은 흑백다방을 이렇게 노래했다. “진해의 모든 길들이 모여들고/모여들어서 사방팔방으로 흩어지는 중원로터리에서/ 갈길을 잃은 뒤죽 구죽진 신발을 등대처럼 받아주던./오늘의 발목을 잡는 어제와/내일을 알 수 없는 오늘이 뇌출혈을 터뜨려/내가 숨쉬기 위해 숨어들던 그 곳./나는 그 곳에

서 비로소 시인을 꿈꾸었으니/내 습작의 교과서였던 흑백다방이어” 많은 문학청년의 가슴을 뜨겁게 타오르게 했던 곳이 바로 ‘흑백다방’이었던 것이다.

선비정신 속의 자유로운 예술혼

유택렬 화가는 1924년 함경남도 북청에서 태어나 해방 후 진해와 인연을 맺었다. 한국의 추상미술1세대로 경남 도전 초대작가. 이 충무공의 서천기원도 제작, 경남 미술대전 심사위원장. 경남 미술인상. 경남 도 문화상. 진해 시민대상. 진해 군항 미술제 발의 등 지역의 문화예술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다. 유택렬 화가의 그림은 사머니즘의 영향 아래 기하학적인 바다를 그렸지만, 깊고 평온한 느낌이 든다. 심연의 강렬함을 밖으로 표현할 때 광기보다는 성찰을 택한 것 같다. 유택렬 화가의 제자이며 조각가인 박석원의 글에서 엿본 유택렬 화가의 성격은, 조용하고 차분하며 외향은 강렬하지만 내면의 깊은 사색을 느끼게 하는 분이라고 한다. 피아니스트인 유경아씨에게 아버지의 성격을 물어보았다. 딸이 기억하는 아버지 유택렬은 매우 치밀하고 꼼꼼한 성격이었다고 한다. 그 치밀하고 꼼꼼한 성격이 그림의 조형성을 만든 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화가는 은둔에 가까운 생활을 했지만 주변을 살피기엔 게을리 하지 않았다. ‘흑백’을 수많은 예술인들과 또 미래의 예술가가 될 사람들에게 내 준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많은 예술가들과 교류하면서 유택렬 화가는 작품 활동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한국적인 것, 동양적 철학사상에 뿌리를 두면서도 서구적 사상의 비교 분석하고 새로운 작품세계 구현에 몰두했다.

나는 처음부터 원시미술과 사머니즘에서 우리 조형의 본질을 찾으려고 애썼다. 용에서부터 고인돌, 점, 단청, 부적, 불교미술 등은 내게 해맨 분야들이다. 처음에는 점차 이미지에 접근해가는 방법을 사용했고, 근자에는 무의식 상태의 조형을 많이 사용하는 셈이다.

— 유택렬의 작업노트 중에서

유택렬 화가의 고백에서 느껴지듯 원시미술과 사머니즘이 바탕이 된 예술을 지향했지만, 한편으로는 어딘가에 갇힌 세계를 벗어나고자 노력했다. 정신의 자유는 물질과 존재의 한계를 없애고 자연에 순응하며 자신을 속박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자유로운 경지에 이른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화가의 정신의 서늘함은 외모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날카롭고 예리한 눈매에 곱슬머리는 웬지 고집이 셀 것 같은 인상. 그러면서도 깔끔한 신사풍의 외모라는 것인데, 그의 ‘자화상’은 간결하게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다.

현재 그의 작품 600여점이 도립미술관으로 옮겨져 있으며 이중섭으로부터 물려받은 화구통과 생전에 애지중지하던 독일제 카메라, 손수 그림을 그리고 빛은 도자기 작품, 손수 조각한 벼루, 바이올린, 드로잉 소품 등이 유품으로 남아있다. 유택렬 화가가 일생동안 찾고자 했던 자유는 무엇일까. 서양화가이면서도 화선지와 먹에 의한 드로잉을 즐겼한 것을 보면 자유 속에서 꿈틀거리는 생명을 보았던 것 같다. 그의 생명력은 사랑에서 온 것이 분명하다. 사랑에 대한 통찰은 오방색을 단순히 강렬하게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오방색에서 깊이를 느끼게 해 주며, 또한 그 색은 따뜻하다. 그의 따뜻한 성품은 6·25전쟁 때 월남해 진해에 정착해 진해중·고, 진해여중·고 등 교직에 있으면서 많은 제자들을 배출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늦은 나이에 첫 전시회를 가진 이후 50여 년 간 경남의 추상미술을 선도해 온 작가로 이름을 남겼다.

여전히 ‘흑백’인 ‘흑백’

예술의 혼이 깃든 흑백을 다시 한 번 천천히 둘러보았다. 부인 이경승(93년 타계)씨가 수집한 고미술품들이 여기저기 놓여있다. 피아노, 구식소파, 차탁, 서랍장, 뮤직박스 등이 추억에 잠기게 한다.

“아버지가 12살이나 어린 어머니에게 컷눈에 반해 엄청 쫓아다녔대요. 흑백도 사실 어머니가 운명을 맡고 아버지는 화실에서 그림작업만 하셨죠.” 유경아씨의 말처럼 유택렬은 1961년 이경승씨와 결혼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찾고 창작에 전념할 수 있었다고 한다. 결혼 후 작품세계도 달라졌던데, 가족, 고향의 산 등이 등장하던 작품세계가 결혼 후 생명, 기쁨을 다룬 내용으로 바뀐 것이다.

유택렬 화가는 미술뿐만 아니라 음악, 인테리어 등에도 관심이 많았다. 흑백다방의

뮤직박스는 클래식LP판으로 가득차 있다. 정사각형 흑백 바둑판 모양의 천장과 뮤직박스의 뒷면 앞에 서면 아직도 잔잔한 클래식이 흘러나온다. 유택렬 화가는 독학으로 바이올린을 배워 연주실력으로 뛰어났다고 한다. 그의 딸인 유경아씨가 피아니스트가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유택렬 화백은 딸에게 늘 창작곡을 하라고 했는데, 유경아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서야 그 일을 시작한 것이 후회가 된다고 한다. 유택렬 화가는 생전에 함부로 작품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작품이 많이 있느냐고 물었다. 유경아씨는 당연히 작품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엔 2층 작은 방 벽장 가방에서 유화소품들이 발견된 적도 있다고 한다.

이제 흑백다방은 지역의 문화공간이 되었다. 과거와 현재가 이어져 예전의 ‘흑백’이 다시 ‘흑백’의 역할로 돌아온 것이다. 극단 고도의 단원들이 정기 공연을 하고 유경아씨는 매월 첫째 금요일 음악감상회를 열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미술전시와 공연, 시 낭송회 등 이제 ‘흑백’은 진해의 예술혼을 품은 따뜻한 동지가 되어가고 있다. 흑백이 까치둥지처럼 느껴진다.

가장 화려한 꽃이 필 때, 바람이 불 때, 서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처럼 꽃잎이 날린다. 어제와 오늘이 서로 만나지 못하는 것처럼. 그러나 먼 과거의 풍경 속을 거닐며 그날을 추억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흑백에서 태어나 여전히 흑백을 지키고 있는 유경아씨의 목소리가 피아노 연주곡처럼 맑다. 참, 그리고 보니 피아노건반도 흑백이다. 유경아씨는 흑백의 작은 창문을 통해 사랑으로 흠날리는 벚꽃을 바라보고 있다. 흑백다방을 둘러보곤 도망치듯 나오는 내 등 뒤에 유경아씨의 목소리가 날아와 꽃힌다. “아깝다. 참 아깝다!”

* 유택렬 화백에 대한 자료는 <흑백다방> 소장 자료와 피아니스트 유경아 선생님께 도움을 받았습니다.

* 박서영 시인은 경남 고성에서 태어나 1995년 ‘현대시화’으로 등단하였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서울문화재단으로부터 예술가 창작기금을 받았다. 시집으로 ‘붉은 태양이 거미를 문다’가 있다.

예향의 새로운 꿈으로 피어나는

동피랑 갤러리



반짝이는 바다와 활기 넘치는 강구항이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동쪽벼랑' 동피랑 마을.

지난 2007년 서민들의 오랜 살터가 공원 조성 계획으로 인해 철거 위기에 놓이자 시민단체

'푸른통영21'이 벽화공모전을 열어 집집마다 벽화를 그리면서 벽화마을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01 동피랑갤러리 초대전 후원 프로젝트

모금 사용처 초대작가 도록 / 홍보 배너 제작비

전시기간 2013. 6. 5 ~ 12. 31

프로젝트 기획 의도

- 300년 통제영 문화의 12공방 정체성 홍보 및 인적 자원 구축의 필요성과 방향성 제시
- 동피랑 벽화마을의 미래적 방향성 제시와 아트상품의 개발과 판매 출구 완성
- 열악한 조건의 지역작가 호응과 전시 기회 제공과 작품 판매 출구 확보를 통한 전업작가로서 지역 미술문화의 인적 자원 구축에 기여
- 타 지역 초대작가를 통하여 인적 자원 교류와 공감대를 통하여 미술문화의 다양성과 방향성 제고에 기여



02 1인 1예술나무 키우기

1달에 1번, 커피 1잔 값을 '예술나무'에 양보하세요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술나무 한 그루'를 키움으로서 문화예술 후원을 확대하고 전 사회적으로 예술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개인의 소액 정기후원을 통해 문화예술을 후원하는 범국민 참여 캠페인입니다. 나무는 애정을 갖고 물을 주고, 가꾸고 키워야 꽃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예술도 나무를 키우듯이 아끼고 관심을 가져야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을 키울 수 있는 힘은 나의 작은 관심과 후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국민이 함께 키워가는 대한민국의 문화예술로 만들어 주십시오.

- 예술나무는 1그루(3,000원)부터 후원할 수 있습니다
- 예술나무 포털(www.artistree.or.kr)을 통해 직접 신청
- 이메일(artistree@arko.or.kr)을 통해 신청가능



동피랑 갤러리는
활동 기회가 많지 않은 지역 작가들이
전시활동을 펼칠 수 있는
창작의 공간이자
예술인들이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는
교류의 공간이다



비탈을 따라 웅기종기 모여 있는 작은 집들의 낡은 담벼락마다 통영의 문화와 예술, 역사와 생활, 동심을 담은 그림들이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채워졌다. 사라질 뻔 했던 이 작은 마을은 예술인들의 손길이 닿아 아름다운 벽화마을로 다시 태어났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전국에 벽화마을 신드롬을 일으키며 공공미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낸 동피랑은 현재 하루 평균 관광객이 3,000여 명에 이르는 문화예술의 명소가 되었다. 2012년 2월, 동피랑 마을 입구에 '동피랑 갤러리'가 문을 열면서 경남의 문화예술을 새롭게 밝혀줄 희망의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널찍한 공간에서 여유롭게 그림을 감상하던 이들에게 이곳은 처음 방문하면 다소 당황스러울 수도 있다. 몇 발자국 시원하게 움직이기도 힘들 정도로 아주 작은 공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작은 곳에 큐레이터가 상주하며 방문자들에게 작품설명을 해주고 있고 아트상품도 판매하고 있다. 전시도 주목받는 지역 작가들의 작품들로 매달 새롭게 열리고 있다. 그저 관광객들의 눈요기에 그치는 갤러리가 아니다.

봄이 찾아온 올 4월에는 광지는 작가의 초대전이 열렸다. 거제에서 활동하는 작가답게 바다와 섬을 주제로 하여 산뜻한 색채로 그린 그림들은 동피랑 마을처럼 포근한 느낌으로 관람객들을 맞아 주었다. 갤러리 운영을 맡고 있는 장치길 연명예술촌장은 동피랑 갤러리에 대해 관광객들에게 문화예술을 알리고 감상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지만, 활동 기회가 많지 않은 지역 작가들에게 전시활동을 펼칠 수 있는 창작활동의 공간이 되고, 또한

예술인들이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는 교류의 공간이라고 말한다. 지역 작가들, 특히 청년작가들이 마음껏 전시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미술 토양을 단단히 다져서 예향 통영의 명성을 이어갈 지역 작가들을 배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전시는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으로 이루어지며, 2012년도에 지역작가전과 초대작가전 15회와 단체초대전 2회 이렇게 총 17회의 전시회를 열었다. 올초에는 한 해 동안 전시회를 통해 기증된 작품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동피랑갤러리 희망나눔전'을 개최하여 미술작품이 일상에 향유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동피랑 갤러리는 작은 규모로 전시되는 작품도 소품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작가들은 부담 없이 편하게 작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그만큼 작품 창작과 선택에 제한이 있고 관람객들이 여유롭게 작품을 감상하기가 힘들다는 애로사항이 있다. 갤러리가 소재한 '마을가꾸기 지원센터'에는 안내소와 경로당, 갤러리, 화장실 등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데, 시의 협조를 받아 평소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경로당을 연결하여

갤러리를 확장해나갈 계획이다. 현재 전시 판매금액의 10%를 마을 발전기금으로 적립하고 있기 때문에 갤러리 공간이 넓어져 이용이 더욱 활성화되면 작품 판매가 늘어날 것이고, 자연히 마을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지원을 다양하게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동피랑 마을 주민들은 관광객을 상대로 기념품과 커피 등을 판매하면서 공식적으로 마을기업을 이루었다. 마을기업을 통해 더 많은 소득이 창출되고 나아가 마을 청소 등으로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어 주민들은 만족스러워 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동피랑 마을은 예술인과 주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가며, 예술과 삶이 조화를 이룬 문화관광지의 모범적인 형태로 계속 진화해나가고 있다.

또이 덴 라 투이

내 이름은 투이



또이 덴 라 투이 _ 개봉 10월 창원 (예정)
제작사_메이드인필름 제작자_설미정 감독_김재한 주연_란응옥

경남에서 만들어지는 기적!

이주민 여성의 애환과 희망을 다룬 독립장편영화

1,200만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올해 최고의 흥행작이 된 '7번방의 선물'은 누구보다 딸을 사랑하는 지적장애 아버지의 지극한 부성애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력의 횡포를 실감나게 그려 관객들의 심금을 울렸다. 이 영화는 보통 사람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이방인' 취급을 받으며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호소하고 있다. 여기 또다른 '이방인'의 삶을 다룬 영화가 경남에서 독립장편영화로 만들어지고 있다. 몇 년 전부터 이주여성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이주민 여성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다가 그들의 삶에 동참하고자 영화 제작을 결심한 설미정 제작자의 제작후기를 들어보자.

독립영화 제작은 모래밭에 물을 붓는 격

영화는 자본의 예술이라고도 한다. 돈이 영화를 만든다는 것이다. 영화진흥위원회의 독립영화 지원조건을 보면 "제작비 5천만원 이상 4억원 이하"를 독립영화라고 규정하고 있다. 5천만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어렵게 5천만원을 들여 영화를 만든다 해도 과연 수익이 날 것인가? 독립영화 제작은 모래밭에 물을 붓는 격이다. 그런 면에서 "또이 덴 라 투이(내 이름은 투이)"는 정말 운이 좋다. 경남은행과 경남메세나협회의 제작지원이 없었다면 이 영화는 시작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이때가 2012년 4월이었다. 스텝 구성과 배우 캐스팅이라는 프리 프로덕션 단계를 힘겹게 거치고 있었다. 일단 지역에서 장편영화를 만든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이 주변 사람들의 공통된 인식이었다. 쉽게 말해 아무것도 없이 집을 짓는 것과 같으니 어느 누가 참여하겠는가? 하지만 이럴수록 더 악착같이 찾아 다녔다. 지금 안 된다고 서울에 가서 만든다면 지역은 또다시 아무것도 없게 되니까. 작품의 완성도도 중요했다. 이 작품이 인정받지 못하면 제2, 제3의 영화는 앞으로 없을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마음을 다잡아 가며 제작비를 지원받고 하나하나 준비해서 결국 2012년 12월 27일 고사를 지내고 첫 촬영을 시작했다.

또 다른 사회적 제작시스템을 발견할 수 있었던 계기

촬영은 결코 쉽지 않았다. 주 촬영 장소인 진해 수도의 그 혹독한 추위와 제작비 부족으로 인한 열악한 환경은 하루에도 열댓 번 촬영을 접어야 하나 하는 고민에 휩싸이게 했다. 예산을 몇 배나 뛰어넘는 하루 지출금액을 줄이기 위해 부지런히 발로 뛰고, 또 다른 촬영장소 섭외와 헌팅 등은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었다면 애초부터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도 영화를 만들 수 있구나, 하는 새로운 제작방식을 경험했다. 또 다른 사회적 제작시스템을 발견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무사히 촬영을 마칠 수 있었다. 총 19회차 촬영을 진행하였고 그 중 보충촬영은 1회였다. 촬영이 끝난지도 4달이 지나가고 있는 현재 후반작업이 진행 중이다. 가편집만 2달 가까이 소요되었고 앞으로 색 보정과 사운드작업이 남았다. 현재는 베트남에서 개봉하기 위해 베트남국립영화사와 협의 중이고 후반작업 지원을 받기 위해 열심히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베트남의 메콩강 근처에서 태어난 투이는 한국으로 시집 온 지 2년 된 이주여성이다.

삼겹살을 좋아하는 그녀

이 영화를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베트남의 메콩강 근처에서 태어난 투이는 한국으로 시집온 지 2년 된 이주여성이다. 아직은 국적이 없지만 한국인이 되기 위한 한국어 자격시험을 준비중이다.

예전에는 섬이었던 마을이 개발로 인해 갯벌이 매립되면서 많은 마을 사람들이 떠났지만 이곳의 사당 당주인 시아버지는 사당할매를 모시며 이곳을 지키고 있다. 한국인과는 다른 얼굴로 인해 때로는 이상한 시선을 받기도 하지만 삼겹살을 좋아하는 그녀에게는 이곳이 이제 고향이다. 어느 날 남편 정수가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아 걱정을 하던 중 청천벽력 같은 남편의 사고 소식이 들려

온다. 남편의

죽에 의문을 느낀 투이는 파출소장을

찾아가지만 단순교통사고라는 말만 듣는다. 어쩔수 없이 큰

경찰서도 찾아서 의문을 제기하지만 아무도 투이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한편 얼마전 이곳 사람파출소로 이동한 상호는 조용할 거라는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많은 것들이 방범대에 의해 조종되고 있는 마을과 정수의 죽음에 의문을 품지만 수사권이 없는 파출소의 경찰이기 때문에 적극성을 띠지 않는다. 자신을 찾아온 투이에게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서 여기서 할수 있는 일이 없다고 설득을 한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투이의 모습에 자꾸 신경이 쓰이고 더 불어 방범대의 과도한 행위에 반감을 가지며 조용히 투이를 돕기 시작한다.

남편의 죽음에 의문을 품고 좌충우돌 진실을 찾고자 한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여인, 투이. 투이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회의 차별, 전통과 미풍양속을 가정한 권력과 폭력, 그리고 깨어지지 않는 강고한 배타성에서 한국사회의 현재를 본다. 또한 진실의 동반자였던 상호의 배반, 그리고 투이의 죽음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극단적 선택을 강요 당하는 우리의 또다른 모습이다.

이 땅에 살다간 수많은 투이들을 위한 진혼곡

치열한 삶을 살았던 투이!

남편의 죽음, 시어머니의 병, 모든 것이 서툰 한국생활에서 우리는 투이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을까? 생명을 놓쳐버린 투이에게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그녀의 안식과 부활을 기원하고, 또다른 투이들과 함께 하겠다는 희망의 눈물을 흘린다. 나는 이 영화가 이 땅에 살다간 수많은 투이들을 위한 진혼곡이자 이 땅에 살아갈 또 다른 투이들을 위한 한국인들의 희망가이길 바란다.

글 설미정 (제작자/메이드인필름)

Culture COLUMN

한국연극협회 부이사장 / 경상남도지회장
천영훈

문화칼럼 경남연극을 말한다

한국연극협회 경상남도지회에는 13개의 시·군지부가 있다. 거제, 거창, 김해, 마산, 밀양, 사천, 양산, 진주, 진해, 창원, 통영, 함안, 함양이다. 또 지부에는 극단들이 있다. 거제지부에는 극단예도, 거창지부에는 극단입체, 김해지부에는 극단번작이와 극단이루마, 마산지부에는 극단객석과무대와 극단마산, 밀양지부에는 극단메들리, 사천지부에는 극단장자번덕, 양산지부에는 극단양산, 진주지부에는 극단현장, 진해지부에는 극단고도, 창원지부에는 극단나비와 극단미소, 창원예술극단, 통영지부에는 극단벽수굴, 함안지부에는 극단아사랑, 함양지부에는 극단광대, 이렇게 협회에 등록된 17개 극단이 있다. 소극장 현황을 살펴보면 장미극장(거창), 가인소극장, 이루마소극장(김해), 가배소극장(마산),공간소극장(밀양), 현장소극장(진주), 소극장판(진해), 나비예술극장, 도파니아트홀, 표현공간소극장(창원), 벽수굴소극장(통영)으로 11개의 소극장이 운영되고 있다.

경남연극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수하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소극장을 유지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것은 소극장에서의 지속적인 훈련과 장기공연을 통해 배우들의 연기력을 향상시키고, 작품을 수정·보완해나가며 더욱 완성도를 높여갈 수 있기 때문이다. 소극장의 소중함은 우리가 늘 먹는 하루 세 끼의 식사 중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 무엇과도 같다. 나는 소극장을 연극작업을 하는 데 있어 시발점이고 모태이며, 조그마한 공간이지만 여기에는 연극인들의 이상과 눈물겨운 현실, 온 우주가 다 들어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물론 연습실만 운영하고, 공연할 때에는 극장을 대관해도 되겠지만 아무래도 연극은 관객과 직접 소통 교감하는 현장예술이기에 공연을 통한 관객과의 직접적인 만남과 연습실에서 무형의 관객과의 만남 사이에 배우들이 느끼는 차이는 실로 엄청나다 할 수 있기에 어렵게라도 소극장을 꾸려간다. 소극장 공연과 대극장 공연의 차이라고 본다면 대극장 공연의 경우에는 일회성에 치우치기에 이벤트성이 강조되고 소극장 공연의 경우에는 실험 창조의 성향이 짙다. 물론 극단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대극장 공연과 소극장 공연이 적절히 어우러지게 기획되어야 할 것이다.

경남연극의 수준은 전국적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는 경남연극제에 심사위원으로 오시는 연극계 원로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봐도 알 수 있다. 경남연극제에 출품한 작품 중 수상권에 들지 못한 작품도 전국연극제에 출품한 다른 지역의 작품보다 뛰어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심사위원들은 경남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연극제에도 심사위원으로 참가함으로써 객관적 평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012년 경남 연극제는 어느 해보다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다. 거제 극단 예도가 '선녀씨 이야기'로 제30회 전국연극제에서 최고상인 대상을 받았는데, 2011년 사천 극단 장자번덕 '바리, 서천 꽃그늘 아래'의 대상 수상에 이어 전국연극제에서 2년 연속 대상인 대통령상을 받은 쾌거를 이룬 것이다. 또한 지역에서 열리는 연극제 중 가장 유명한 연극제인 거창국제연극제와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사상 최대 관객

을 모으며 성공적으로 치러져 경남이 연극의 메카임을 다시 한 번 입증하였다. 이렇듯 경남연극의 질적인 향상을 가져온 것은 각 지역, 각 극단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이기도 하겠지만 그 이면에는 경남연극인들의 소통과 화합이 뒷받침되어 있다. 이를테면 경남연극제에서 특정 극단이 대상을 받아 전국연극제에 출품하게 되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도와서 전국연극제에서 큰 상을 받을 수 있게 보완해주려 하고 힘을 보태려 하는 것이다. 연극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손잡고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연극인들의 상생협력이 오늘날의 경남연극을 만들었다.

경남연극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다양한 시도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한가지 예로, 경남연극협회에서 2011년부터 경남연극인들의 재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외국의 유명연극인들을 초빙하여 수준 높은 워크숍을 통해 연극인들의 발전을 돕고 있는 것이다. 덕분에 경남의 관객들은 경남 연극이 나날이 성장해나가는 모습을 즐겁게 지켜볼 수 있다.

경남연극인들은 오늘도 배고픔을 잊고 더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 고심하고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 지역예술 발전은 지역예술인들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메세나 기업의 지원으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열악한 것이 현실이며, 더 나은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경남연극과 아름다운 동행에 함께할 여러분의 따스한 관심과 후원을 기다린다.



지역문화를
풍요롭게
가꾸어가는

—
내서
문화포럼

마산회원구 내서 지역은 오래전부터 산세가 수려하고 물이 많아 살기 좋은 곳이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택지지구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으로 변화하여 낮에는 인근 지역의 일터로 출근했다가 저녁에 돌아와 안정을 취하는 베드타운 형태로 자리 잡았다. 인구 증가에 따라 교육시설이나 편의시설 등 물질적 환경은 나날이 풍요로워지는 데 비해, 정신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예술 관련 인프라는 매우 취약했다. 이에 지역민들의 문화적 욕망을 채우고자 2009년 11월 음악, 무용, 국악, 연극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지역 예술인 7명이 모여 지역 주민과 함께 만들어나가는 문화공동체 '내서문화포럼'을 만들었다. 2010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여 삼계근린공원에서 매달 다양한 공연과 영화제를 열어왔고, 지역민 대상 가야금교실, 미술교실, 포크댄스교실, 발레교실 등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도 성황리에 운영해왔다. 2013년은 전반기 청도와 후반기 통영 등으로 역사탐방도 다녀올 예정이다. 가을에는 결산공연인 '동네방네 문화난장'을 열어 주민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솜씨를 뽐내며, 함께 나누고 즐기는 축제의 장을 만들 것이다. 지난 4년 간 내서지역 문화부흥을 위해 애써온 이동근 회장은 문화를 통한 삶의 풍요로움을 지역민과 나누기 위해 '문화달고나'라는 타이틀로 본격적인 문화놀이를 시작하고자 한다.

“문화(文化)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즐기는 것입니다. 물질이 사람을 욕심나게 한다면 문화는 사람을 정신적으로 살찌우게 하지요. 소박한 모양새의 삼계근린공원 야외공연장이지만 지금까지 이곳을 통해 우리는 가족을 만났고 이웃을 알았고 문화를 즐겼고 마음의 풍요를 얻었어요. 늘 지금 같은 마음으로 문화놀이를 즐기고 싶어요. 그것이 지금의 '문화달고나'를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이유일 것입니다.”

내서문화포럼은 공연과 영화제, 문화예술교육, 역사탐방 등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통하여 문화 불모지였던 내서에 시원한 문화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올해는 문운수치과의원과 메세나 결연을 맺고 지원받게 되어 이제 더 나은 환경에서, 완성도 높은 문화행사들을 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일 정	2013년 5월부터 9월까지 매달 둘째 주 금요일, 토요일		
시 간	17:00 ~ 21:00		
장 소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 삼계근린공원 야외공연장		
후 원	문운수치과의원 / 경남메세나협의회		
프로그램	6월 14일(금)~15일(토)	● 전안초등학교 윈드오케스트라 공연 ● 2013 마산국제춤축제 · 발레 돈키호테 파드 되(이정민, 이승환) · 김용철 섹 무용단 '드라마 음악과 함께하는 춤 여행' · 발레 독무(이승환, 이정민) · 모던댄스 콘서트(김하나-검은돌, 이계환-Ah!Gra, · 김도경-Neue Tanz, 진양(중국)-심해) ● 파플스토리 플롯앙상블중주단, MS실용음악학원 콘서트	
	7월 12일(금)~13일(토) 삼계근린공원 야외공연장	● 대중가요콘서트-하동민, 김산, 이경민/영화제(애니메이션 '로봇') ● 택견시연(내서 삼계전수관)/영화제('라디오스타')	
	8월 9일(금)~10일(토) 삼계근린공원 야외공연장	● 경남필청소년오케스트라 콘서트/영화제(애니메이션 '드래곤헌터') ● 광라국악관현악단 콘서트/영화제('미션임파서블')	
	9월 13일(금)~14일(토) 삼계근린공원 특설무대 (공연) 안계마을까페 502 (그림, 사진 전시)	● 택견콘서트(내서택견전수관), 기타콘서트(한울림), 풍물공연(전안초 풍물패), · 내서문화포럼 가야금교실, 포크댄스교실 결과물발표, 내서문화포럼 미술교실 전시회(안계마을을 깨페 502), · 내서문화포럼 문화답사(경북청도/경남통영), 영화제(애니메이션'슈렉3', '글러브'), 마임콘서트	

놀이판
풍물판
어울림 판

—
2013
고성오광대
상설공연
—
판

01 **숫대패사물놀이예술단**
6/21(금) 19:30

장소 고성오광대전수교육관
주최/주관 중요무형문화재 제7호 (사)고성오광대보존회
후원 문화재청, 경상남도, 고성군, 경남은행, 대산농촌문화재단, 고성오광대후원회
문의 고성오광대전수교육관 055)674-2582



6/21 **숫대패사물놀이 신명나는 풍물한마당 “소리와 영혼의 울림”**

1989년 창단한 숫대패사물놀이예술단은 전통문화예술의 멋과 흥을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키고 있는 단체로 국립민속국악원, 고성오광대 등 다양한 단체와 연대하여 좀더 깊이있는 한국음악을 연구하고 발전시키고 있다. 이날 공연에서는 문굿과 길놀이, 삼도설장구가락, 삼도풍물가락, 한량무, 문동북춤, 말뚝이춤, 판굿을 선보여 한국전통음악의 진수를 감상할 수 있다.

7/20 **전통예술원 마루 타악퍼포먼스의 “아빠의 청춘Ⅱ”**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아버지들의 이야기를 때로는 재미있게, 때로는 눈물이 흐르게 하는 감동으로 풀어내어 가족애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타악 퍼포먼스다. 이 작품은 타악잡이들이 펼치는 공연으로 타악과 죽방울 등 현란한 기예도 함께 선보인다. 마루는 진주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젊은 타악 단체로서 대다수 구성원이 진주·삼천포 12차 농악전승자로 그 연주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제1장	아빠! 출근한다	제3장	스트레스 날려버리다
제2장	사람에 지치는 사회에서	제4장	가족이란? 내일에 대한 희망

8/10 **전수대학생 어울림 공연 ‘춤의 역사가 다시 깨어난다’**

춤의 고을 고성 사람들. 경남 고성은 작은 군이다. 이곳에서 전승되는 탈놀이는 “고성 총쇄록”에 그 놀이의 실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이는 ‘신중동국여지승람’에서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는 아주 오래된 역사를 지닌 탈놀이이다. 이 역사의 고장 고성에서는 매년 축제가 열린다. 1969년부터 전국 각지의 대학생들이 모여 춤판을 펼치는 것으로 올해로 44년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것이다. 8월 10일 전국의 대학생들이 모여 젊은이들만의 오광대를 펼친다. 고성오광대를 배우는 젊은 전공자들도 참가하여 풍물, 판소리 등도 곁들인다. 2013년 젊은이들의 광대판, 오광대의 신명이 하나 되어 춤 세상을 만든다.

회장	기업(단체)명		대표자
	경남은행	은행장	박영빈
부회장	기업(단체)명		대표자
	경남오페라단	단장	정찬희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장	임경숙
	(주)경한코리아	회장	이상연
	(주)고려할강	대표이사	한철수
	(주)무학	회장	최재호
	(주)삼원테크	대표이사	이택우
	(주)센트랄	회장	강태룡
	(주)우수AMS	회장	전종인
	(주)피케이벨브	대표이사	박한근
	315아트센터	관장	도난실
	기업(단체)명		대표자
	김해서울이비인후과	대표원장	정태기
	청호산업개발(주)	회장	이동기
이사	기업(단체)명		대표자
	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	회장	이종일
	경남에너지(주)	대표이사	정연욱
	경남은행	본부장	박태훈
	경남자동차판매(주)	대표이사	이인호
	경상남도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경원벤티크(주)	대표이사	공경열
	(주)고구려	대표이사	임재현
	농협중앙회경남본부	본부장	전역수
	(주)리베라호텔	대표이사	김태영
	법무법인 금강	대표변호사	김원태
	산골농장	대표	이상호
	신화철강(주)	대표이사	정현숙
	원광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조성제
	(주)인산가	대표이사	김문세
	창원대학교	예술대학 교수	김도기
	한국민예총경남지회	지회장	고승하
	한국예총경남도연합회	회장	공병철
	한림건설(주)	대표이사	김익수
	(주)현대단조	대표이사	마평수
	화성G&H(주)	대표이사	김원철
	(주)화영	대표이사	이흥원
	(주)화인테크놀로지	대표이사	서영욱
	STX조선해양(주)	부사장	김태정
	the극병원	행정원장	박창석
회원사	기업(단체)명		대표자
	성부가스산업(주)	대표이사	박도일
	성동조선해양(주)	회장	정충준
	선린자모의원	원장	이성동
	(유)상화도장개발	대표이사	이년호
	상남굿모닝내과병원	대표원장	이창열
	삼흥열처리	대표이사	주보원
	(주)삼진조선	대표이사	강영일
	삼중건설(주)	대표이사	김연우
	삼중건설(주)	대표이사	정진욱
	삼정기업	대표	최정두
	경남스틸(주)	대표이사	최충경
	(주)삼전건설	대표이사	정연문
	삼원동관(주)	대표이사	김갑수
	삼우금속공업(주)	회장	방호철
	(주)삼보산업	회장	윤병고
	(주)산수출포장	대표이사	최은수
	(주)사릭	대표이사	고재곤
	비에이치아이(주)	대표이사	우종인
	(주)북성산업	대표이사	박한병
	(주)부일이앤씨	대표이사	김 철
	(주)보강기업	대표이사	김경고
	(주)베스트엔드베스트	대표이사	서준호
	범한산업(주)	대표이사	정영식
	바힐라캐빈(주)	대표이사	손철호
	미즈맘 여성병원	대표원장	이덕희

기업(단체)명		대표자
미조종합건설(주)	대표이사	박종우
미르치과의원	원장	박 욱
문운수치과의원	원장	문운수
무림페이퍼(주)	대표이사	김인중
명제한의원	원장	이동준
명성개발(주)	대표이사	이성원
마산청아병원	이사장	최재영
마산정안과	원장	정기용
라운건설(주)	대표이사	손정수
디케이락(주)	대표이사	노은식
디씨엠(주)	대표이사	정연택
두남화학	대표이사	김두선
동환산업(주)	대표이사	고동환
동인하이텍(주)	대표이사	남재열
(주)등은화학	대표이사	박창원
(주)동오프랜지	대표이사	최옥철
동양특수금속(주)	대표이사	전말선
(주)동구기업	대표이사	류병현
(주)덕광중공업	대표이사	이상석
(주)대호엠앤아이	대표이사	김중수
대한전선전기(주)	대표이사	신충철
거제컨벤션웨딩뷔페	대표이사	김솔
대우백화점	대표	이문수
(합)대산전기공업사	대표	박기태
대신금속(주)	대표이사	박수현
대선주조(주)	대표이사	조용학
대방스페셜스틸(주)	대표이사	김양규
(주)대동종합건설	대표이사	곽인환
대경건설(주)	회장	이윤우
(주)노키아티엠씨	대표이사	모린사랑턴
거제시문화예술회관	관장	김호일
남영산업	대표이사	공병철
남영산업개발(주)	회장	이방열
낙우산업(주)	대표이사	이용민
김해시공영(유)	대표이사	김용하
김해상공회의소	상임위원	박영재
기선산업(주)	대표이사	임광택
(주)기산산업	대표이사	최주철
(주)금정	대표이사	장인성
(주)금술개발	대표이사	윤정한
거제레미콘(주)	대표이사	김정자
금성이노텍(주)	대표이사	전도열
금강중기	회장	손병철
금강전기공업사	대표	양우석
그린산업(주)	대표이사	정병홍
(주)국제전기	대표이사	황장봉
광신기계공업(주)	대표이사	권환주
광득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최광주
고운치과병원	원장	고철수
PTX엔진(주)	대표이사	최인엽
PS엔터테인먼트	대표	최민선
(주)ONE	대표이사	이종호
흥일기업(주)	회장	윤한생
(주)환웅정공	대표이사	한장규
(주)환웅전기	대표이사	한장규
(주)화인에이티씨	대표이사	윤상대
(주)강민종합건설	대표이사	백승훈
(주)화영	대표이사	손하현
화일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정복영
화성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최순택
흥기종합건설(주)	대표이사	황동열
(주)호텔인터내셔널	회장	윤영호
(주)현대기업	대표이사	이호철
해성메탈(주)	대표이사	손균환
한국항공우주산업(주)	대표이사	김홍경
한국태양유전(주)	대표이사	남필수
한국제강(주)	회장	하종식
한국정기공업(주)	대표이사	류홍목
(주)한국자연환경	대표이사	강동규
(주)한국아나세	회장	우영준
한국소니전자(주)	대표이사	김세현
경원여객자동차(주)	대표이사	강세민
한국남부발전하동본부	본부장	이근덕

기업(단체)명		대표자
하이에어코리아(주)	대표이사	김근배
포스코특수강(주)	대표이사	조노하
(주)포스텍	대표이사	조옥성
팬코리아중공업(주)	대표이사	한장규
(주)태현메가텍	대표이사	박병출
(주)태완정공	대표이사	박수원
태광실업(주)	대표이사	박용길
쿠쿠홈시스(주)	대표이사	구자신
(주)코텍	대표이사	최주원
(주)케이씨	대표이사	이정열
추고쿠삼화페인트(주)	대표이사	사타키츠스케
초심공업(주)	대표이사	석현목
(주)창원자동차학원	대표이사	김진열
창원서울이비인후과	대표원장	유화경
창원상공회의소	회장	최충경
(주)지에스비	대표이사	이수부
중원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안권상
(주)중앙금속	대표이사	정영건
중앙건설(주)	대표이사	여봉규
주용테크	대표	류선재
(주)정문애드테크	대표이사	윤수일
정남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송헌영
(주)정한	대표이사	장이근
(주)장성E.P.S	대표이사	신충길
(주)장생도라지	대표이사	이영춘
일립나노텍(주)	대표이사	박효찬
인화정공(주)	대표이사	이 인
인산죽염총(주)	대표이사	최은아
(주)이우	대표이사	최병철
(주)이앤티	대표이사	박갑진
(유)이삼사보이호텔	대표	홍충대
의료법인진주의료재단	이사장	박 건
의료법인성녕의료재단	이사장	이충삼
의료법인복음의료재단	사무국장	정지영
의료법인동과의료재단	이사장	이충삼
윤한의원	원장	윤진구
유전공업(주)	대표이사	류재기
(주)유림철강	대표이사	심재룡
유림건설(주)	대표이사	노철호
(주)유피엠	대표이사	박정우
원광산업석재	대표	이상섭
원 한의원	원장	원호영
(주)옥산아이엠티	대표이사	조동원
오션커뮤니케이션즈	대표	장경국
(주)오곡산업	대표이사	윤종열
(주)영창기업	대표이사	이강대
(주)영일정공	대표이사	유병일
(주)영신화공	대표이사	강영전
영민테크	대표	김민호
(주)영남엘피씨	대표이사	정환달
영광산업(주)	대표이사	정현식
एको시스텔(주)	명예회장	정찬희
에이스브이	대표이사	구윤희
(주)에드테크	대표이사	박기용
(주)세노텍	대표이사	김억곤
(주)신한물산	대표이사	조현민
(주)신텍	대표이사	조용수
신창기계	대표	구자도
(주)신우디텍	대표이사	백해진
(주)신우공업	회장	신용운
신동방산업(주)	대표이사	성대규
신대양(주)	대표이사	박종춘
신광에이스전기(주)	대표이사	김강민
시영건설(주)	대표이사	조경용
승진기계(주)	대표이사	백구영
숙편한내과	원장	조종현
(주)세양정공	대표이사	유병현
(주)세복	대표이사	김복기
(주)성환금속	대표이사	윤성환
(주)성지	대표이사	박상길
(주)성우	대표이사	이상필
경남신문	회장	정충건
가이BBS(주)	대표이사	정문흠

경남메세나협의회 사업소개

GYEONGNAM MECENAT

기업과 예술의 만남이 행복한 경남을 꽃피웁니다.

기업과 예술의 만남사업 _ ARTS & BUSINESS

결연사업 : 기업과 예술단체가 1:1 결연을 맺고, 사회공헌, 마케팅, 경영전략 차원에서 상호 협력하여 기업은 경쟁력을 제고하고, 예술단체는 안정된 창작활동을 보장받을
으로써 서로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기업은 예술단체에 자금, 사내 공간, 티켓 구매, 직원 자원봉사 등을 지원하고, 예술단체는 기업에 사내공연 및 직원 예술
교육, 공연초대, 기업 홍보 등 기업의 창조적 문화경영 활동을 지원합니다.

경남중소기업 예술지원 매칭펀드
중소기업이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에 비례하여 경상남도에서 해당 예술단체에 추가로 지원하는 MATCHING-GRANT 프로그램

예술단체 워크숍 : 예술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실무 교육을 실시합니다.

회원사 협력사업 _ COOPERATION

찾아가는 공연 : 문화예술 서비스를 통해 창의적이고 유연한 기업문화 형성	문화공감 : 회원사에 우수문화공연 관람티켓을 제공합니다.
하고자 회원사가 필요로 하는 공연, 전시, 예술동아리 등	문화경영도서 : CEO를 위한 문화경영 관련 도서를 배부합니다.
찾아가는 문화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정기탁 :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회원사의 각종 후원금을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합니다.

문화 나눔사업 _ SHARING ART

찾아가는 메세나 : 문화예술을 쉽게 접하지 못하는 우리 이웃을 찾아가 다양한 문화공연을 제공함으로써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넓히고 있습니다.

사랑의 나눔티켓 : 도내 복지시설 어린이에게 즐겁고 유익한 문화예술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정서함양을 돕고 있습니다.

연구 및 홍보사업 _ DEVELOPMENT

〈경남메세나〉 발간 : 도내 기업의 메세나 활동을 홍보하고, 지역 문화소식을 알리고자 연 3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남메세나포럼 : 회원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문화경영에 대한 이해를 높입니다.

지역문화특화사업 : 지역의 고유한 문화예술 또는 문화예술인의 활동을 지원하여 경남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합니다.

홍보대사 위촉 : 지휘자 금난새를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기업과 예술의 행복한 동행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경남메세나대회 _ GYEONGNAM MECENAT AWARDS

경남메세나대회 개최 : 메세나 활동으로 아름다운 사회공헌을 실천한 기업과 문화예술계가 만나는 축제의 장입니다.

경남메세나상 시행 : 경제와 문화예술의 균형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개인 등을 발굴하여 공로를 시상합니다.

COVER STORY



남해 바람흔적미술관

경남 합천 황매산 부근에 '바람흔적미술관'을 열었던 설치 미술가 최영호가 경남 남해 내산저수지 근처에 두 번째로 세운 동명(同名)의 사립미술관이다.

미술관 앞 저수지 근처에는 바람흔적미술관의 대표적인 설치작품인 대형 바람개비들이 도열해 있는데 양철 바람개비에 각기 크기와 음이 다른 종을 달아 바람이 불면 아름다운 멜로디가 울려 퍼진다. 전시회 관람을 목적으로 오는 관람객보다 독특하고 예쁜 미술관 자체를 보러 오는 여행객이 많다. 현재는 최영호 관장에 이어 김귀영 관장과 새로운 운영진이 2012년 9월 부터 운영하고 있다.